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1.07+08

통권 제106호 (비매품)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1년 7월 5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대) FAX 02-2203-1974
디자인 하나로애드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CoverStory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대화와 소통으로 서로 가까워지는 대한민국

머릿글 신달자 시인

7·8월 프로그램

Issue&Seminar

- 김용준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Hot&Issue 성도GL의 문화 나눔 이야기

세상을 보는 눈 이정수 북성형외과 원장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경영Essay 박춘봉 부원광학(주) 회장

회원&연구원소식

발행인편지

아카데미 뉴스

2011 제주 CEO 섬머포럼

Special Focus CEO 미디어스퍼치 4기

휴&Health 서유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정보비타민

명사초청특강 양준혁 SBS 야구해설위원

홍원탁칼럼





미래 경쟁력 세계1위 롯데백화점
대한민국 대표 롯데백화점이 재무 및 친환경, 사회공헌도 등을
평가하는 2010년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소매업 부문에서
미래경쟁력 세계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DEPARTMENT STORE

LOTTE

이제 세계유통의 중심은 롯데입니다 미래경쟁력 세계 최고, 롯데백화점



러시아 모스크바, 중국 베이징·톈진,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전세계에 행복한 쇼핑의 꿈을 전합니다

견디는 무게가 사랑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질서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 존재의 의미일 것이다. 제아무리 문화적·사회적 만족도가 높다고 해도 한 개인의 존재가 무시되고 그 존재의 의미가 압박당한다면 그것은 기본질서가 망가진 형태일 것이다.

거대담론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존재로부터 스스로의 만족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사회라고 부르며 가정이라고 부르기도 할 것이다. 결국 개인의 만족도와 기쁨, 이익이 중시될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나는 아주 작은 문제로 딸아이와 부딪칠 때가 있다.

“중간벨트를 또 잠그지 않았잖아.”

아침 출근하는 딸이 가스 중간벨트를 잠그며 횡현관 쪽으로 나가며 내게 말했다. 목소리는 다정하게 들리지 않았다. 늘 가스 벨트로 딸에게 주의를 받은 적이 많아 나는 뭐라고 대답도 못한 채 있는데 딸아이는 나가버렸다.

왜 딸아이 말이 맞았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감기기운 때문에 억지로 일어나 생과일주스를 갈아 화장대 앞까지 가져다 준 수고는 아무런 말이 없고 벨트문제만 지적하고 횡하니 나가버리는 딸의 뒷모습에서 나는 정지된 상태로 한참을 서 있었다.

나이 때문인지 모른다. 이런 작은 문제로 나는 마음을 다치고 우울해지고 갑자기 세상이 재미없어진다. 생과일주스가 맛있다고 한 마디 하고 나서 ‘벨트는 또 잊었네요’하고 애교스럽게 말하면 어디 덧나나? 나는 옛날 어른들이 한심하게 내뱉는 말처럼 자식은 아무 짝에도 소용없다고 생각할까 봐 욕실에 들어가 이를 번번 닦았다.

엄마와 딸이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아니다. 어찌면 더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문제로 마음을 다치고 상처를 받는다. 나

도 그런 일을 잘 저지른다. 나는 딸에게 늘 한수 깎아서 말을 한다. “네가 그걸 했던 말이야”라든가 “너 하는 일이 늘 그렇지”라든가 “도무지 네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알보는 말을 쉽게 흘린다.

좀 변명을 하자면 나는 어머니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 딸이 잘되기를 바라니까 말은 그렇게 조금 내려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그게 어디 가까운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요즘 내 딸에게 말조심을 한다.

내 딸 지현이는 부정적이고 어둡고 자신이나 상대를 깎아 내리는 것을 무섭게 싫어한다. 무조건 밝고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활기를 불어 넣는 것을 기본 생활인의 철학으로 생각하는 아이다. “너나 잘해! 지는 개떡같이 하면서...” 그런 말이 입속에서 씹히지만 나는 참는다. 내가 사랑이란 때때로 조금 험글로 내려 깎아서 말할 때가 있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자식을 “나가 죽어라”라고 하거나 “저 웬수, 싹 없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라고 해도 그게 거짓말인지 다 알고 헤헤 웃곤 했었다. 누구도 나가 죽는 아이도 없고 없지는 경우 또한 없었다. 과장법이 곧 사랑이라는 통용어로 사용하던 시절 욕은 오히려 끈끈한 애정의 타액 같은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지현이는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 관심이 많다. 우울하다고 해도 위로는 하지 않고 “그렇게 앉아있으니 우울하지. 생각을 바꿔”라고 잔소리를 하더니 긍정심리학 책을 사가지고 왔다. 먼저 읽고 나에게 내미는 긍정심리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사라지게 하고 긍정적인 정서에 대해 연구하고 개인의 강점과 미덕을 추구하여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활력을 만들어 내는 의지를 창출하는 내용들이었다.

‘그걸 내가 몰라? 다 알지만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

고 딸의 모든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야단치고 싶어 죽겠는 내 마음이 긍정심리학으로 해결될 것 같니?’ 나는 쏘아 주고 싶었지만 그 책을 양전하게 읽었다.

가족이란 참 어려운 관계다. 가족과의 관계를 성공하면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도 알고 보면 가족과의 어려움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왜 우리는 좋은 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조목조목 지적하고 상처를 내서 자존심을 다치게 했을까. 삶이란 늘 여유 있는 것이 아닌데 말이지.

가족이 행복하면 각자 하는 일도 잘 풀린다. 어느 회사에서는 가정행복프로그램을 짜서 아내에게 편지도 쓰고, 부인을 회사에 모셔 와서 대접하고, 대화프로그램도 짜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가족과의 행복을 회사일과 병행하는 것을 보았다. 가정이 행복하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것이 소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개인 권익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에서 한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무게야말로 회사나 국가를 들 수 있는 무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예미**

● 신달자 시인

1943년 생으로 숙명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국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9년 현대문학에 ‘발’, ‘처음목소리’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시집으로 <열애>, <벼랑 멈추다>, <종이> 등이, 수필집으로 <고독은



가장 깊은 사랑이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등이 있고, 소설 <물위를 걷는 여자> 등 많은 작품이 있다.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를 거쳐 현재 숙명여대 객원교수로 출강 중이다. 사회통합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제1699회 7월 7일(목)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최광식 문화재청 청장

새로움을 추구하며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경쟁력은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국가브랜드를 좌우하는 지표가 된다. 과거 조상들의 정신과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해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접근은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을 표방하며 어제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가치창출을 꾀해야 한다.

2011년은 문화재청이 출범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문화재청은 1961년 10월 2일 문화재관리국으로 출범한 이래 사라지거나 훼손된 문화재를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는데 힘써왔다. 최근에는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을 찾는 일을 시작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전통과 맥을 현대적으로 브랜드화하자는 의미이다. 물론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갈등, 해외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대중화, 정보화, 국제화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문화재는 박제가 아닌 살아 있는 역사이며, 살아있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삶 속에 다가가도록 하겠다는 최광식 문화재청장을 초빙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고려대 사학과 졸업 | 고려대 사학과 석박사 |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고려대박물관장 |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 |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 중국의 고구려사외국 대책위원장 | 한국고대학회 회장 | 한국사연구회 회장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부회장 | 서울시 박물관협의회 공동대표 |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위원

〈상훈〉 박물관인의 날 대통령표창

〈저서〉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우리 고대의 성문을 열다, 한국 고대의 토착 신앙과 불교 외

■ 창조는 문화의 인터페이스 혁명에서 나온다

제1700회 7월 14일(목) 플라자호텔 B1층 그랜드볼룸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 전 문화부 장관

전 세계 7-8억 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사이버 공간이 아니라 중국, 인도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지닌 '나라'로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인터넷에서는 모두가 익명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가면무도화라도 같이 얼굴 없는 사회를 만들어냈지만 실명위주의 정책을 들고 나온 페이스북은 아날로그의 인간관계를 그대로 사이버사회와 결합시킨 디지로그의 파워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이 기반이 된 익명성의 정보화사회가 막을 내리고 인간과 자연, 생명의 아날로그가 접목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 석학인 이어령 전 장관은 지난 10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IT 기반의 정보화사회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아날로그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한 디지로그가 핵심 컨셉이 되는 생명자본주의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적 인터페이스 혁명에서 창조가 나오고, 그 혁명은 디지로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생명에서 오는 지혜를 자본시장에 이용하는 생명자본주의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번 1700회 기념연구회에서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해 온 이어령 전 장관을 초빙하여 지난 2006년 창립 31주년 기념연구회에서 예견했던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결합한 디지로그시대가 오늘날 생명자본주의 시대로까지 변화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디지로그 발상으로 인한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국문학과 졸업 | 서울대 국문학 석사 | 단국대 국문학 박사 | 중앙일보 논설위원, 상임고문 |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 | 초대 문화부 장관 | 이화여대 석좌교수 |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 대통령자문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 | 경기창조학교 교장

〈상훈〉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일본 국제교류기금 대상, 체육훈장 맹호장, 대한민국 예술원상, 제12회 만해대상, 한민족문화 예술대상 외

〈저서〉 이어령 라이브러리(전30권), 디지로그, 젊음의 탄생, 이어령의 춤추는 생각학교(전10권), 대한민국 국격을 생각한 다 외

■ 겉보다 속이 더 두려운 일본의 산업 경쟁력

제1701회 7월 2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이창렬 삼성사회봉사단 사장

옛날부터 우리는 일본을 왜(倭)라고 부르기도 했고, 일제 치하를 겪은 과거 사 때문에 일본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만만하게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로 볼 때 국토 면적만 해도 우리나라의 약 4배이고, 인구도 1억2천만 명이 넘는 일본은 확실히 우리보다 큰 나라이다. 무조건 일본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역발상으로 일본을 우리나라 발전과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일본에서 바라본 삼성'을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루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삼성의 경영 실적이 괄목할 만하다. 실제 2004년 삼성전자는 일본의 전자업계 탑10의 매출 이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다. 6년 넘게 일본삼성의 사장을 맡으면서 삼성의 일본통으로 불리는 이창렬 사장은 일본 경제와 산업의 진면목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일본을 뛰어넘는 삼성의 약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이 사장은 선진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 형성, 사회제도와 시스템, 선각자의 리더십과 인재육성, 창조적인 벤처마케팅 등이 일본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오랜 기간 삼성맨으로 일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창렬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을 초빙하여 겉으로 보이는 일본이 아닌 내면의 일본을 이끌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우리 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양대 기계공학과 졸업 | 1976년 삼성중공업 입사, 삼성중공업 동경지점 근무 |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근무 | 삼성전자 전무이사 | 삼성중공업 부사장 | 일본삼성(주) 대표이사 사장 | 삼성사회봉사단 단장/사장 |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저서〉겉보다 속이 더 두려운 일본의 산업 경쟁력

■ 21세기 한민족시대, 최고경영자의 비전과 선택

제1702회 7월 2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박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는가.” 6.25전쟁이 끝나고 2년이 지난 1955년 10월, 한국을 돕기 위해 파견됐던 특별조사단인 유엔한국재건위원회(UNKRA)의 인도 대표 메논은 한국을 이렇게 표현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쓰레기통’과도 같았다. 당시 우리나라를 시찰하고 돌아간 영국 런던타임스의 사이먼즈 기자도 같은 표현을 신문 헤드라인으로 썼다.

하지만 한국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웠다. 한국이 피워낸 장미꽃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렸고,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는 이미 세계적인 고전이 됐다. 국내 ‘경제학 박사 1호’인 박영훈 박사는 당시 ‘한강의 기적’의 중심에 서서 기적을 일궈낸 원동력과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 머나먼 독일에서 ‘씨앗’을 가져와 이 땅에 심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뒤로 하고 21세기 한민족시대를 맞이해 가혹하고 치열한 국제경쟁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명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의 위치를 새롭게 평가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학 박사인 박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을 초빙하여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과 이에 따른 최고경영자들이 가져야 할 비전과 선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고려대 상과대 졸업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독일 Erlangen대 경제학 박사 | 중앙대 상과대학 교수 |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소 소장 | 경제개발계획 자문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경제고문 | 제9, 10대 국회의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자문위원장 | 한국질서경제학회 회장

〈상훈〉 대통령포상, 은탑산업훈장, 대통령 유공기념비, 독일 민간외교훈장, 국민훈장모란장, 독일연방공화국 대십자훈장 외

〈저서〉 경제를 새로 쓰자, 위대한 한국시대를 위하여, 대한민국 그 위대한 힘 외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암, 극복할 수 있다

제1703회 8월 1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흡연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한 번쯤은 금연을 결심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연을 버려내지 못하고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에서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이 설 곳은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흡연의 폐해가 널리 알려지고 금연운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연운동의 중심에는 '금연전도사'라 불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박재갑 원장이 있었다.

2008년 기준으로 암환자 발생은 178,816건에 이른다. 이 중 암환자 발생의 29.8%, 사망의 30%가 담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폐암은 78.3%, 식도암은 86.1%, 후두암은 59.5%, 방광암은 50.2%, 췌장암은 37.8%, 위암은 36.1%가 흡연이 원인이며, 심장병이나 심장혈관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 원인의 20%가 흡연이라고 한다.

이렇듯 흡연은 여러 암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기에 박재갑 원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흡연과 암의 상관관계를 알리고 전국적으로 금연운동을 확산시키는데 힘써왔다. 그 공로로 2005년 세계 금연의 날 세계보건기구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건강하게 살려면 담배부터 끊으라'라고 경고하는 금연전도사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초빙하여 담배와 암의 상관관계 및 효과적인 금연방법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의학과 졸업 | 서울대 의학 석박사 | 서울대 의대 교수, 암 연구소 및 암연구센터 소장 |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 회장 | 국립암센터 초대, 제2대 원장 | 대한암학회 이사장 | 세계대학대장외과학회 회장 | 국립중앙의료원 초대원장 및 이사장

〈상훈〉 황조근정훈장, 제3회 서울대 AMP대상, 세계금연의 날 WHO 금연공로상, 세계금연지도자상, 제1회 국가정책인 대상, 관악대상 영광부문 외

■ 광복절에 생각한다 - 한국의 역사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제1704회 8월 1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원장

현대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다. 인류가 발명한 최초의 도구는 주먹도끼이다. 이처럼 인류 도구의 역사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종, 체질, 혈통, 민족 등이다. 인류 도구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했지만 혈통과 체질을 달리하는 민족의 역사, 종족의 역사는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민족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힘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민족분단이라는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뒤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돌진하는 고속성장의 와중에서 역사 의식 결여와 철학의 빈곤이라는 병폐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문화의 올바른 정립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되찾아 물질적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의 기반 위에 역사 의식과 철학을 겸비한 한국인으로 거듭남으로써 세계의 선진국가로 우뚝 서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뜻깊은 8.15광복절을 맞아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학자 심백강 박사를 초빙해, 우리민족이 걸어 온 지난 역사를 되짚어 그 정체성을 확인해 보고, 현재 우리의 역사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국립대민사대 및 중국 연변대 졸업, 역사학 박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동양문화연구소 이사장 | 월간 《한배달》 편집인 | 대한상고사학회 부회장 | 국사찾기협의회 부회장 | [제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사, 백제사연구소장, 백제문화사대계편집위원장 | 중국 연변대 객원교수

〈상훈〉 제3회 정민학술문화상

〈저서〉 제3의 사상, 누가 가장 자유로운가, 쓸모없음의 쓸모있음, 무엇을 사람이라 하는가, 2000년만에 밝혀지는 한민족의 역사-황하에서 한라까지 외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사회의 변화와 미래전망

제1705회 8월 2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오다케 요시키 일본 AFLAC 창업자/ 최고고문

2011년 3월 11일 오후, 일본 토호쿠 지방 해저 24km 지점에서 규모 8.9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후 약 14m의 대규모 쓰나미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세계경제 2, 3위를 다투던 일본의 지진 피해규모는 방사능 유출 피해액을 제외하고도 최소 1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확실히 일본 경제는 하향세를 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긍정적 예견도 있다. 큰 피해로 인한 정부 주도의 투자정책과 생산시설 파괴에 따른 새로운 생산시설의 투자, 시장 활성화 정책, 인프라 복구 투자는 지금까지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일본 경제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일본 경제가 현재 주춤하고 있지만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산업들은 최근 눈에 띄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복구 속도 역시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어 V자 반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일본 보험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플락의 창업자 오다케 요시키 최고고문을 초빙하여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사회의 변화상을 통해 향후 미래 전망에 대해 들어보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대 일본 투자전략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日 히로시마 농업단기대(현 히로시마현립대) 졸업 | 대구한의대 명예보건학 박사 | 1974년 일본 AFLAC 설립, 부사장, 사장, 회장, 고문 | 국제기업경영자협회(IMA) 이사 | 아스펜연구소 감사 | (사)New Business협의회 부회장 | 학교법인 명치학원 이사 | (사)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이사 | (재)국제과학진흥재단 회장

〈상훈〉 일본국가훈장 '란주호우쇼' 수상, 비즈니스위크 아시아 스타 50인 선정

〈저서〉 이것으로 좋은가 일본, 리더개조론, 주머니 속의 인간학, 가장 소중히 해야 할 것





인간개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함께하는

중국을 지난 10년 동안 숨 가쁜 시간을 보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경제가 흔들리고, 올해 일본이 대지진으로 힘들어 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내수시장에서 세계 1등 시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제1693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2011 중국마케팅 - 중국시장의 기회와 도전

내수시장 확대로 돌아선 중국 경제

중국의 가장 큰 변화는 내수시장의 확대와 도시화 추진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12차 5개년 경제계획은 중국 인민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다. 도시화는 1998년 주룽지가 실패했던 정책이지만 이번에는 다른 전략과 정책으로 큰 변화를 줄 것이다.

중국 정부가 왜 내수시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또 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GDP의 개념은 소비와 투자와 무역의 총합으로 설명한다. 지금까지 중국은 주로 투자와 무역을 통해 성장하는 전략을 펼쳤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GDP는 2008년 3조 달러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기축통화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바람에 외환의 가치가 툭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위안화를 25% 평가 절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간 7% 이상의 GNP 성장률을 유지해야 고용창출 등 사회 유지를 할 수 있는 중국 정부로서는 심각한 위기에 놓인 셈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노동자와 농민의 당인데, 고용창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존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난관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내놓은 것이 내수 확대이다. 중국은 당분간 3조 달러를 사회간접자본(SOC)과 국내소비에 집중 투자할 전망이다. 성장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무역에서 소비, 즉 내수로 중국 경제의 방향이 전환된다는 말이다.

실제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소비와 무역의 비중이 바뀌었다. 2007년 중국이 11.8% 성장할 때 무역은 2.6%, 소비는 4.1% 기여했다. 그런데 2009년 8.7% 성장할 때 무역은 -3.9%, 소비는 4.6% 기여했다. 중국 소비자를 정확히 읽어낼 필요가 여기에 있다.

중국 내수시장 소비의 중심 '바링허우'

중국이 내수시장을 확대하면서 어떤 계층이 어떤 소비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관심사이다. 평 정지에라는 작가의 그림을 보면 아름다운 중국 여성의 눈동자가 바깥으로 돌아간 상태를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설명한다. "화면 속의 여성들이 서구의 물질문화를 쫓아가는 현대문명을 표현한 것이다. 나는 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을 찾아갈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일련의 작품들을 중국의 초상이라고 하였다."

우선 중국의 세대별 소비자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50년대 생을 우링허우, 60년대 생을 류링허우, 70년대 생을 치링허우, 80년대 생을 바링허우, 90년대 생을 주링허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각별히 주목해야 할 세대는 30대인 바링허우와 20대인 주링허우이다.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4대 개혁 중 하나가 1가구 1자녀 생육계획이다. 청화대에 재직할 때 생육계획실이라는 것이 있었다. 청화대 교수가 되면 이곳에서 결혼시기를 보고 언제쯤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지정해 준다. 지정된 자녀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공산당증을 뺏는다. 중국은 지금 모든 집안이 자녀 한 명만 낳을 수 있고 소수민족들만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다.

1가구 1자녀 생육계획을 시행하면서 등장한 제1대 소황제 세대인 바링허우들이 중국 소비자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30대인 바링허우들은 이제 결혼을 앞둔 세대들이다. 이들은 큰돈은 아니지만 각자 유산으로 집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1년에 5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난다. 주로 쇼핑을 위해서 홍콩, 마카오, 한국에 오는데, 이 중 1천만 명의 중산층이 한국을 찾으면 한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금세 3만 달러 소득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이다. 바링허우들은 수입은 적지만 독생자여서 양가 부모의 재

산이 그대로 모인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소비하면서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지닌 것이다.

현재 중국의 바링허우 인구는 약 2억4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월수입이 1만 위안 이상인 사람들이 11.9%를 차지한다. 월수입 5천 위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남한 인구에 맞먹는 4천만 명을 초과한다. 고학력자가 많은 것도 바링허우의 특징으로 전체 창업자의 7.1%가 이들이다. 실제 대학에 진학하는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1998년 111만 명이던 신입생 숫자가 10년 만에 599만 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학 온 중국 학생들이 8만 명을 넘어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해서 서비스하고 관리하는 학교 교직원이나 정부 공무원이 없다. 이대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는 '자산'이 아니라 부담만 주는 '업보'가 될 수도 있다.

20대인 주링허우는 기존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한동안 유명했던 중국의 '꽃거지'를 보면 헤어스타일이나 착용하고 있는 벨트 등이 이탈리아 명품 구찌에서 소재로 쓰고 있는 스타일이다.

계란부터 람보르기니까지 짝퉁이 나오는 중국이지만 올해부터는 세계 최대의 명품시장이 될 것이다. 명품브랜드의 평당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이 지금까지는 롯데백화점의 루이비통 매장이었는데, 이것이 상해로 넘어갈 것이다. 1년에 40%씩 성장하고 있는 루이비통은 올해 6천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파리의 명품거리를 가면 중국인이 아니면 손님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중국인들은 한 번 쇼핑에 명품을 싸쓸이하다시피 하는데 한국인들은 구경만 하고 잘 안 산다는 것이다. 신라호텔 면세점 전체 매출액의 70%를 중국인 관광객이 올려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 베이징에 사는 모델 마누오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전거를 타면서 아무리 많이 웃는 남자보다 울더라도 BMW에서 우는 남자가 낫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40대인 치령허우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세대로 벤츠나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을 타고 다닌다. 북경 야인촌광장에 가면 밤에 람보르기니 수십 대가 모여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식사대접을 받으면 한결같이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먹는 갈비탕, 비빔밥 같은 단품 메뉴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인들을 대접해야 한다면 한정식으로 하는 게 좋다. 중국인들은 음식을 눈으로 먹는다.

2·3급 도시를 공략해야 성공

12차 5개년 경제계획의 두 번째 화두는 도시화이다. 지역 간 차별의 해소는 중국의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도시의 규모를 보면 중국 어느 곳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의 도시는 크게 인구 1천만 이상의 1급(북경, 상해, 광주, 중경, 천진 등 5개 지역), 인구 500만 정도의 2급(장춘, 청도, 무한, 남경 등 15개 지역), 인구 100만 이하의 3급(장사, 곤명, 복주 등 150개 지역) 도시로 분류된다.

한국기업은 이 중에서 2, 3급 도시를 공략해야 한다. 숫자가 많은 반면 경쟁은 덜 치열하다. 총 소비와 성장률도 훨씬 크다. 1급 도시의 총 소비량은 834억이고, 2급 도시 1810억, 3~4급 도시 8440억이다. 시장성장률도 10%, 20%, 40%로 3급 도시의 성장률이 훨씬 높다. 1급 도시의 소득이 아직 높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도시가 빈곤을 넘어 냉장고, 휴대폰, 컴퓨터, 에어컨, TV 등 내구재 수요가 폭증하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인들은 이미 13억5천만 명이 중산층이 되었다. 중산층은 내구재를 소

비하는 집단인데, 5급 도시까지도 모든 인민들이 중산층인 세상이 되었다. 중국의 2~3급 도시들은 우리나라 부산보다 낫다. 루이비통 판매가 가장 많았던 곳도 3급 도시인 하얼빈이다. 동북3성의 광산 지주들이 큰돈을 벌어서 중국 명품시장에서 제품을 싹쓸이하는 형태로 구매하고 있다. 80억 원의 람보르기니 한정판이 중국에서는 내놓자마자 다 팔렸는데, 태원이라는 탄광도시에서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이 차를 산 사람이 인터넷에 기사화되기도 했다. 그만큼 시골에도 엄청난 부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3~4급 도시 중 동쪽은 발달돼있는데 서쪽이 문제이다. 서쪽으로 8억 명의 인구가 있고 그 중 농민이 3억 명이다. 중국에 휴대폰 사용자가 8억 명인데, 농민, 실업자도 휴대폰은 다 갖고 있다. 정부에서는 서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장쩌민 시대에 각종 이익을 쥐가며 개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후진타오와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5세대 정치지도자들은 서부를 소비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4급 도시인 시골지역을 합쳐서 인구 20~30만 명 정도의 소규모 도시를 만들고 사회간접자본을 투입해 각 지역에서 자생적인 소비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이런 계획 중인 곳이 2500개 정도 된다.

중국에서는 세일즈 포인트가 2500개 정도 된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이랜드, 라앳락, 삼성전자 등의 영업점은 2500~3000개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점 1000개를 넘기기 힘들지만 중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전역에서 한다면 3000개의 세일즈 포인트가 필요한 시장으로 성장했다.



실패를 자산화 할 수 있는 기업이 성공

내년이면 한중수교 20주년인데, 실질투자가 5만 건 정도 늘어났다. 그 중에서 생산과 영업으로 내수시장을 공략한 것이 1만 건 정도이고, 2~3년간 수익을 내는 건이 2천 건 정도 된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3년간 흑자를 내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분명 성공한 기업이다. 5만 건이 진출해서 1천여 건 정도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현대자동차는 두 차례의 실패를 잘 이겨내고 현재 중국 자동차시장 2위를 달리고 있다. 처음 우한에서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대당 원가가 3천만 원이었다. 중국산 동급 차량은 1천5백만 원이면 생산할 수 있었다. 결국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중국은 아직 자동차시장을 개방하지 않아서 우한시공업청과 50% 합작 파트너로 진출했는데, 300만 달러 프로젝트를 단돈 1위안을 받고 철수한 것이다.

첫 번째 실패 후 기아자동차에서 관사로 진출해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10여 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관사는 중국시장의 진입장벽에 해당한다. 이 장벽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기에 최소화해서 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대기아자동차가 3차로 진출한 것이 북경현대이다. 그동안 가장 많은 수익을 냈다. 올해 70만 대 판매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최고 기록이 50만 대라는 점에서 중국시장의 파괴력을 짐작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보면 실패를 자산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성공할 수 있다. 한두 번의 실패로 좌절하는 회사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이랜드는 중국 매장이 3600개로 매출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랜드는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중국연수를 먼저 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주재원 개념이 아니라 현지근무를 시키기도 한다. 이랜드는 중국에서 고가전략으로 시작해 메이저 백화점 3층에 매장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도 최근 5~6년 사이 명품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저가브랜드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샌드위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샌드위치도 맛있는 샌드위치가 있다. 중국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 30대 초반이므로 고가의 명품은 구매력이 없고, 중국 제품은 사기 싫고, 그래서 'made in korea'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시장이 크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 소나타 같은 중급차량은 같은 구조로 다른 디자인을 만드는 경우이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면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액토즈소프트라는 회사가 2002년도에 중국에 설립됐다. 한국 기업들이 만든 벤처회사인데, 유통회사는 중국 기업이었다. 중국에서는 2년 정도 흑자를 내면 홍콩이나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벤처기업으로 성장해서 7년 정도 수익을 내야 코스닥이나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평균 3.7배의 가치평가를 받는데, 중국기업은 11.7배 정도 받는다. IT, BT처럼 첨단사업의 경우 나스닥에서 20배 정도의 가치평가를 내고 있다. 5~6년 수익을 내는 회사가 중국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나스닥에 상장하면 한국에서는 4배 정도 인정받지만 나스닥의 경우는 12배 정도 받을 수 있다. 한국기업의 성장전략은 사업다각화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키워 가는데, 중국기업은 자기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상장한 다음 다른 기업을 M&A 한다.

락앤락은 중국에서 차 통을 만들어서 경쟁사인 타파웨어가 가지고 있는 시장점유율의 두 배 이상으로 성장한 신진 회사이다. 락앤락은 신입사원을 뽑으면 중국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시킨다. 중국주재원이 280명이고, R&D센터도 중국으로 옮겼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가장 성공한 사례는 오리온이다. 중국에서의 매출이 한국에서 매출보다 크다. 중국에 진출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장점유율 55%를 유지하고 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하루에 1억 개 이상이 팔린다. 중국의 모든 슈퍼마켓 과자 진열대 가장 가운데에 초코파이가 있다. 중국 가정에 초대되면 초코파이를 선물로 사간다.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사업도 하고 있다.

그런데 온갖 짝퉁이 판을 치는 중국에서 과연 어떤 비밀과 전략으로 현금으로만 파는데도 시장점유율 55%를 달성할 정도로 중국 전 인민들이 좋아하는 제품이 되었을까? 중국에서 초코파이를 선물해서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비밀은 바로 '광고'에 있다. 초코파이는 중국에서 '정(情)'을 팔았다. 알코올 농도 30% 이상의 독주를 먹는 민족에게는 '정'이라는 것이 있다. 러시아 사람들도 정이 많다. 초코파이라는 '파이'는 짝퉁을 만들 수 있지만 '정'은 짝퉁을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을 되새겨 보면 좋겠다.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적에게 있을 것이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나에게 있을 것이다." **김세미**



2010년 정기 인구통계 조사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되었다. 평소 심각하다는 인구문제를 수치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가 미처 고령사회에 대응체계를 갖추기도 전에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민이 많다.

제1696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국내외적인 환경변화

최근 우리 주변에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다. 국내적인 변화는 국민들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왔고 지금도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집단주의적 사고에서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고 있다. 가족도 전통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와 관련한 중요한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이 바뀌고 있다. 가족 계획 캠페인을 강하게 펼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은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지만 지금 그것이 바뀌고 있다. 젊은 부부들이 딸 낳을 보장만 있다면 아이를 낳겠다거나 하나 더 낳겠다는 이

야기를 한다.

글로벌한 변화는 인구가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다.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시아의 4마리 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이머징 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가들이 브릭스,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구대국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현재의 저출산 수준에 비춰보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쟁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예상된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인구가 7~8천만 명 수준이 되면서 인구 규모로 영국 등과 대등해질 수 있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하면서 인구도 늘려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반도 남쪽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남한의 힘만으로 올 수 있는 한계에 이미 다다랐다. 통일된 한반도가 완성되면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 1.08명

1970~2010년까지 40년간의 출산율 변화 추이를 보면, 1970년도의 합계출산율이 4.5명이었다. 여성 한 명이 4~5명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제성장이 우선인 상황에서 한국전쟁 이후로 베이비붐이 일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다보니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강력한 산아제한 캠페인을 펼쳤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이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주요인이기도 하다.

그 후로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서 1983년에는 2.06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정도 출산율만 유지하면 총인구가 늘지도 줄지도 않는 인구대체율 수준이 된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이때부터라도 정부가 인구정책을 서서히 전환해야 했는데, 그 때도 역시 치열하게 가족계획 캠페인을 펼쳤다. 예비군 훈련 가변 정관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혜택에서도 제외시켰다. 아이 셋을 데리고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볼 정도의 사회분위기였다.

급기야 2005년에는 출산율이 1.08명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그때서야 비로소 정부는 허겁지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집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차 5개년 계획이 끝났고, 올해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76조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출산율이 1.22명으로 다소 올랐으나 이 추세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OECD 평균 출산율이 1.7명인데, 세계 출산율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186개 국가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 수준이다. 우리보다 낮은 홍콩이나 보스니아는 개별국가로서 가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이 말은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라는 말이기도 하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 변화

2016년이 되면 14세 미만 유소년 인구 비율보다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일본의 노령인구 비율이 23%이고,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으로 11.3%인데,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38%까지 올라가면서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 인구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인구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늘어놓으면 현재는 한 가운데 오는 연령이 38세 정도이지만 2050년이 되면 중간 연령이 57세가 된다. 인구 절반은 57세 미만이고 절반은 57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

2019년이 되면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보다 먼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즉 15~64세 미만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핵심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노동시장에서는 고령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0.09~0.17% 수준으로 감소한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기업에서는 고령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노동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소비계층의 감소도 큰 변화 중 하나이다. 전체 연령층에서 구매력이 가장 높은 계층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이다. 그런데 그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히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생산성이 하락한다. 그리고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시장도 위축된다. 기업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를 소비해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경영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경영여건이 악화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4%대를 유지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2040년 이후에는 1.4%까지 떨어질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부양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2005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면 됐지만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는 국가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게 된다. 2008년 대비 2020년 총지출은 37% 증가하는데 비해 세입증가는 15% 수준에 머물러 결국 재정수지가 35조 원 수준으로 악화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인구가 줄고, 세원이 줄어들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고령인구층이 많아지면 사회보장비용은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 비용부담이 출산의 걸림돌

해법은 젊은 인구를 늘려서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즉,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우리가 갖는 부담을 완화시키려면 출산율을 높여서 젊은 인구비율을 증가시키고 국가재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저출산, 출산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저출산 고령화를 이야기하면서 출산문제에만 재정을 투입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로 저출산에만 치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늘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출산율 문제로 가는 것은 어

떨 수 없는 현실이다.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다양하다.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책도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5개년 계획을 보고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비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책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출산의 주체인 젊은 세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맞벌이를 원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으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회적 여건, 직장 분위기, 근로관행, 기업문화 등 모든 것이 불편하다.

고학력 시대가 되면서 여성들도 일을 통한 성취욕이 상당히 강하다. 취업은 필수고 결혼은 선택으로 생각한다. 일을 하고 성공하는데 있어서 결혼과 출산이 장애가 된다면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젊은 여성들의 이런 생각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런 여성들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일을 고민해야 한다.

낮은 출산율의 두 번째 원인은 비용부담이다. 아이를 한 명 낳아서 기르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한

다. 하나 낳아서 길러보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둘째는 못 낳겠다고 생각하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도 힘들고, 취업을 하더라도 가정을 책임질 정도의 소득이나 고용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있다. 20년 전 평균 초혼 연령이 여성 25세, 남성 28세였다. 최근에는 여성 30세, 남성 32세로 점점 늦어지고 있다. 결혼이 늦어지니까 둘 낳으려던 계획도 나이 때문에 하나만 낳는 경우가 늘고 있다. 덩달아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력도 떨어지고 있다.

가족친화경영은 개인, 기업, 국가 모두 원원

지난 10년 사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에 근접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 그러나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가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툭 떨어진다. 결혼 후 일과 가정의 양립이 힘들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오지만 이때는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같은 직종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니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워킹맘들에게는 여전히 불편한 사회구조이다.

실제 조사를 해보면 일하면서 출산휴가 쓰고, 육아휴직 하고, 회사에 아이들 핑계로 일찍 집에 가는 경우, 여성들은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한다. 그래서 출산휴가도 줄여서 쓰고, 제도화된 육아휴직도 써먹지 못한다. 만성적인 야근, 예고 없는 회식 등이 워킹맘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남성들이 변하고 기업이 변해야 한다. 최근 출산의 주체인 젊은 남성들은 아이 양육을 함께 하겠다는 자세로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근로관행, 분위기가 변화를 지원하지 못한다.

결국 기업경영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첫 번째가 가족친화경영이다. 가족친화경영은 개인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물론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아지면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개인, 기업, 국가 모두가 윈윈하는 일이 된다.

실제 가족친화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 여성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유한킴벌리이다. 유한킴벌리는 직무 특성별로 유연근무시간제를 활용하고 있고,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산업재해, 이직이 거의 없고, 회사에 대한 직원만족도도 굉장히 높다. 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도 상당하다. 이렇게 되면서 우수한 인력들이 몰리는 효과까지 나타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공사례도 많이 있다. 부탄가스를 생산





하는 태양산업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기업이지만 어린이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기 업체 한국에보트는 회사 내 경영진과 근로자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사에 적합한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 가족친화경영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략이 된다.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가 제고되어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이미지가 제고되면서 우수한 인력이 몰리고, 그 결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노력으로 인해 출산율이 높아지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 나아가 경제계 전반에서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정부 정책지원

정부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가 기존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50만 원 정액을 지급했다. 그러다보니 근로자에 따라서 임금손실이 커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정액이 아닌 정율제로 바꾸어 기존 임금에 비례해서 5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높였다.

근로시간저축후가제도도 도입했다. 출산 전에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할 경우 초과수당을 급여의 형태로 받지 않고, 시간으로 저축해뒀다가 나중에 출산, 육아 기간 동안에 단축근무를 하면서 저축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보육시설은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기 때

문에 기준이 까다로운데, 가능한 이 기준을 완화시켰다. 요즘은 기업들이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족친화기업이라는 인증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보육비 경감이다. 지난 3년 동안 보육재정은 지난 정부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또 만 5세까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육비 부담을 덜게 하자는 취지로 추진한 정책들이다.

요즘 무상복지 논쟁이 한창이다. 나는 무상복지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무상 혜택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그것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알면서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정말 혜택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하게 제공하면서 사각지대를 메워가는 접근이 맞을 것이다. 다만 보육이나 양육 문제는 복지나 비용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2007년 일본의 노사정 합의문에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노력, 즉 가족친화경영을 비용이 아닌 내일을 위한 투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고품화 속도가 빠르지만 우리는 아직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부양 부담도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5~7년간을 인구보너스 기간이라고 한다. 이 기간에 부지런히 노력해서 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우리에게 시간은 별로 없다. 이제는 즉각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KPMG**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성도GL의 문화 나눔 이야기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간 퍼플 기획전 개최



5월 28일 열린 제9회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아름다운 재단과 사랑의 1% 운동

지난 5월 28일 오후,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야외무대를 타고 파주 헤이리에 울려 퍼졌다. (주)성도GL(사장 김상래)이 매년 후원해 개최하는 헤이리 심포니오케스트라의 9번째 정기연주회다.

최근 메세나 활동을 마케팅과 경영 전략에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성도GL은 문화 예술경영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기업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내부 조직만족도 향상을 위해 문화경영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경영의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김상래 사장은 '문화경영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책임을 지속할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 문화경영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김 사장은 문화경영을 기업철학으로 격상시켰다. 성도GL을 단순히 필름, 기자재 판매 회사로만 생각했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문화콘텐츠를 세상에 구현시키는 문화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가치관을 공유하게 만든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객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서 경기도 파주 헤이리에 복합예술공간인 '공간 퍼플'을 만들고, 헤이리 오케스트라를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문화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로 인해 회사의 인지도는 물론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직원들도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됐고, 이는 업무 몰입도 향상으로 이어졌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 문화 감성의 공유

연 2회 공연을 펼치고 있는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이번이 9회째로, 자연 속 공간 퍼플 야외 공연마당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롭나 있다. 이번 연주회는 '작곡가의 심오한 음악세계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특출함을 지닌 지휘자'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서현석 지휘자의 지휘 아래, 성신여대 음대 성악과 교수인 소프라노 박지현, 베르디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쥔 테너 나승서의 특별공연을 선두로 Edward Elgar의 Marches 'Pompand Circumstances' Op.39, 조두남의 뱃노래 등 국내외의 다양한 작품들이 연주되었으며, KBS 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 진행자이자



직원들 안라산 등반대회



직원가족들과 뮤지컬 관람 후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편안하고 매끄러운 해설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 날은 공연뿐만 아니라 2011 공간 퍼플 상반기 기획전으로 준비된 '추사와 함께-추사 김정희, 박인식, 서세옥, 이우환'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번 전시회는 추사 김정희 6점, 박인식 회화작품 4점, 서세옥 회화작품 1점, 이우환 회화작품 5점 등 총 16점이 전시된 기획전으로 추사 김정희의 작품을 액자 없이 바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학문과 예술의 근원을 철저히 탐구하고 그 본질에 대한 접근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변용, 접목시켜 추사체를 완성했던 김정희의 예술세계를 통하여 현대미술작가인 박인식, 서세옥, 이우환의 작품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전시로 지난해 '수행과 시방'과 동일한 맥락의 전시로 준비되었다. 이번 기획전은 4월 1일 시작해 오는 8월 31일까지 이어진다.

헤이리 미술관 공간 퍼플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야외 전시장을 포함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의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개관 이래 총 6회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했다. 공간 퍼플의 전시는 한국현대미술사의 재정립, 전통미술의 현대적 재해석, 중요 작가 연구 등 지속적인 학술적 검증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미술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공간이다. 특히 성도GL의 문화경영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공간이며, 지역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하고 있다.

김상래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문화경영의 이념과 철학을 실현하고, 고객과 함께 상생하는 좋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헤이리 미술관 공간 퍼플

회사와 직원들의 자발적인 문화니눔운동

성도GL은 한국메세나협회를 통해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중소기업 메칭펀드를 맺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연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 중소기업 메칭펀드 활동을 시작한 성도GL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직원들과의 감성 공유 등 다양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성도GL은 문화니눔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삼더 펀드'를 설립했으며, 임직원들은 매월 본인 급여의 1%를 삼더 펀드에 적립하고 있다. 회사에서도 이를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의 적립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문화예술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회사는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과 가정과의 조화와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입사원 입사 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11시 콘서트를 관람하면서 환영회를 한다거나 클래식과 함께하는 가족행사, 직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도서 선물, 전 직원의 롤링 페이퍼를 통한 메시지 공유, 대표이사의 결혼기념일 친필 편지 전달, 헤이리 공간 퍼플 미술관 체험 등의 문화정책들이 대표적이다. 송년 및 신년 행사를 문화공연 관람으로 대신하는 성도GL의 전통은 이미 업계에서도 유명하다.

성도GL의 문화 감성 공유와 전파를 위한 노력의 결실은 파주 헤이리 문화마을에 위치한 미술관 공간 퍼플로 압축된다. 하늘의 신성함과 인간화합의 고귀한 뜻을 담고 있는 보라색의 의미를 가지고 예술과 대중의 만남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자 설립된 공간 퍼플은 그동안 최만린의 조각과 드로잉, 이강소 虛(허)-emptiness, 비자연-곽인식, 이우환, 이강소/수행과 시방-추사 김정희, 윤희근, 최명영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작품전들을 시도하면서 대중에게 다양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간 퍼플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여 전시를 즐길 수 있으며, 전시뿐만 아니라 공간 자체의 미술적 감각과 인테리어,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으로 지역사회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의 문화마케팅 활동은 기업이미지를 높이는데 긍정적이다. 향상된 기업이미지는 실제 고객충성도를 높여 구매력에 영향을 준다. 성도GL은 이미 이러한 진리를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KH&A**



김상래
성도GL 사장



성도GL은...

성도GL은 1974년, 개인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래픽의 꿈과 상상을 세상에 구현하게 함으로써 인류문화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래픽 아트 분야의 제품, 서비스, 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픽 솔루션 파워하우스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 2005년 그 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상공회의소와 매일경제신문에서 공동주최하는 기업 혁신대상에서 중소기업부분의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업중앙회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 문화대상 수상, 2010년 생산성본부에서 수여하는 생산성대상 - 미래기업부분을 수상하는 실적을 올렸다.

대화와 소통으로 서로 가까워지는 대한민국 계층·이념·지역·세대 간에 소통의 장 만들어가는 사회통합위원회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갈등은 소통의 부재로 인한 것인 만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계층, 이념, 지역, 세대 간에 소통의 장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대한민국 사회에 꼭 필요한 단어인 것 같지만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희미한 형상뿐이다. 그래서 사회통합위원회라는 조직 이름도 아직은 낯설지 모른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대통령소속으로 출범한 사회통합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보완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양철학을 전공한 송석구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소화할만한 사회적 여건을 만들지 못한 것이 갈등의 혼란 시대에 직면하게 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면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며 소통과 대화로 문제에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올 하반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통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현장성, 실천성, 활동성을 강화하고 있는 사회통합위원회의 송석구 위원장을 만나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진단해보고 대화와 소통으로 화합하는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사회통합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통합이 중요합니다. ‘선진화’의 기본 요건은 인간의 평등과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발생했고, 이 갈등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따라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에 대한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고, 그 해 12월 23일 고건 위원장을 중심으로 1기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 후 지난해 12월 23일에 제가 2기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계층·이념·지역·세대 갈등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1월 31일 열린 사회통합위원장 위촉장수여식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 능력을 한 단계 높이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사회통합위원회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그동안 여러 성과들이 있었지만 사회통합이란 것은 관념적인 측면이



사진 · 오경근 원장

강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통합이 뭐냐고 물었을 때 형상화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을 발표한 것입니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10개월 동안 9차례의 토론을 거쳐 60개의 합의사항을 도출한 결과물로 구동존이(求同尊異)의 정신으로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화해와 협력'을 처음 시도한 것으로 거의 모든 사회적 현안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열악한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한 것으로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강사료를 대폭 올렸습니다. 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다문화가정 및 탈학교 자녀들을 위한 국제다문화학교 설립,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마련, 기업형 슈퍼마켓(SSM) 갈등 예방 대책 등의 대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기 위원회 활동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기 위원회 활동의 철학적 기초는 소통과 대화입니다. 갈등은 결국 소통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소통은 대화를 한다는 것이고, 대화는 인간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가능한데, 인간존중이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원효대사의 화쟁(和靜)사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쟁론에 '여언이취 개불허고(如言而取 皆不許故) 득의이언 무불허고(得意而言 無不許故)'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따르면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말에 담긴 뜻을 살려 들으면 무엇이든 용서하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말 그대로만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상대의 말뜻을 잘 이해하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화쟁사상의 근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હે는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정책 대안을 만들고, 보수 진보간의 대화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기 위원회는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성, 실천성, 활동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 생활



5월 3일 개최된 사회통합위원회 본위원회 워크숍

하는 지역 현장을 많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역협의회 설치 운영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앙과 지역 간 소통이 안 되면서 국책사업이 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앙과 지역의 소통 통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종교화합을 위한 7대 종단 간 토론회', '함께 찾는 공정사회의 조건과 과제', '함께 만드는 2만 불 시대 이후의 한국 복지',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갈등 해결 방안', '풀뿌리 지역화합운동 활성화 추진'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6월 9일 열린 동반성장과 사회통합 토론회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갈등이 특히 심각합니다.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2009년 삼성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보다 갈등지수가 높

은 나라는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 등 3개국뿐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갈등의 현실을 보면 지난 세기에 우리 경제는 압축성장을 해왔으나 갈등을 소화할 수 있는 국민의식, 제도, 교육, 문화 등이 뒤따르지 못해 압축 갈등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해 평균 37건의 사회 갈등이 분출됐는데, 사회 갈등의 두 축인 이익갈등과 가치관 갈등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분출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은 역사적으로도 그 뿌리가 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반도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삼국시대 통일에 대한 이념 갈등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통일의 주체가 어디냐는 것이 주된 갈등의 요인이었겠죠. 고려의 건국과 왕건시대에도 갈등은 있었고, 조선조에 와서는 불교와 유교, 성리학 사이에 이념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성리학을 조선조 500년의 정치이념으로 삼았는데, 인간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성리학적 정치이념입니다. 그러다보니 조선조의 지배계층은 도덕성에서 자유롭고 피지배계층은 도덕성에 억압당하는 사회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내면적 질서는 지도자들이 더 굳건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치이념화 되면서 지도자와 국민들 간에 차별의식이 생기게 된 거죠. 대한제국 때는 개화파와 수구파 간에 갈등이 있었으며, 일제 식민시대에 들어서면서 공산주의적 이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궁극적으로 항일운동으로써 공산주의의 이념으로 바뀌었고, 해방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적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6.25전쟁이 일어났고 반탁과 찬탁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일제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해방 이후 표면화 되다가 6.25전쟁을 통해 명백하게 분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택한 겁니다. 그러다가 민주화 과정에서 다시 사회주의가 나타났고, 사회주의가 민주화 과정에 많은 역할을 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기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갈등 현상 가운데서도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르지만 보수와 진보 간에 접촉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 2011년 4월 15일(금) 14



4월 15일 개최된 공정사회의 조건과 과제 1차 세미나

사회통합이라는 대원칙에 관심을 갖고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죠. 올해 위원회는 '공정론'의 한국적 함의를 짚어보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보수 진보 간 공감의 영역을 모색하기 위해 '공정사회의 조건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4차례 세미나 개최될 예정인데, 제1차 세미나는 '한국적 공정

사회론의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지난 4월 15일 개최됐으며, 2차 세미나는 6월에 '공정한 한국경제를 위하여'를 주제로 열립니다. 3차 세미나는 '공정한 사회의 국가와 정치'를 주제로 9월에 열리고, 4차 세미나는 '미디어와 공정성 지표'라는 주제로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현상으로 인한 계층 갈등도 심각합니다. 특히 빈곤층 문제가 그런데요.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계층 간에 갈등이 심화되면 그만큼 국력이 상실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룬 경제적 열매를 골고루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로빈곤층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근로연계복지 모델 개발, 비정규직 대책 등 개선 방안과 복지·고용·보건서비스 전달 체계를 종합 점검해 사회정책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빈곤층이 세습적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빈부 격차



지난 4월 열린 자원봉사시대추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송위원장

사회지도층의 나눔과 봉사' 선포식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제8기 대표단 취임식

일시 : 2011. 3. 30 장소 : 프레스센터 주최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3월 30일 사회지도층의 나눔과 봉사 선포식

의 사다리를 메워야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 대학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지역균형선발제도 확대 시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득권층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확산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식, 부동산 기부에 대한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공항, 공사 지방이전 등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역갈등을 해소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부 정책 추진이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역 상호 간 갈등은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호남 간 지역갈등은 선거과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회는 대표적으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갈등 해결 방안과 영호남 지역갈등 완화를 위한 풀뿌리 지역화합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6월 중에 프랑스의 공공토론위원회(CNDP), 영국(Icarus), 덴마크(Danish Board of Technology) 등 선진국의 갈등관리 기구를 방문, 기획 취재를 통해 국가적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영호남을 중심으로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자발적인 모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서로 왕래하면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인위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남지역기관단체간담회에 참석한 송 위원장



지난 5월 17일 열린 종교화합을 위한 7대 종단 대토론회

종교 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대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종교계의 화합을 이끄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사회이면서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종교간 협력과 대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화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동안 종교계는 3.1운동과 신간회 이래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여정을 거치며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껏 우리 사회는 종교계의 노력으로 여러 갈등 없이 지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간의 노력에 더하여 다시 한 번 화해와 일치, 이해와 관용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종교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소통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종교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7대 종단 지도자 방문, 종교계 지도자 오찬, 종교자문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쳐 왔고, 지난 5월 17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7대 종단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

회를 계기로 앞으로 종교계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으로써 종교계와 사회통합을 위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종교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종교지도자의 역할에 더해 일반 신도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교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모두 타 종교를 인정하면서 화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적극적인 신도들 간의 대립이 갈등으로 비춰진 적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지도자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일반 신도들 또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종교간 화합을 위한 첫걸음 이겠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종교적 가치를 지향하지만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사회통합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천주교의 생명, 원불교의 은혜, 유교의 인, 천도교의 성경신, 민족종교의 개벽사상 등은 모두 사회통합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신적 지향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사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는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학교, 이웃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다문화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안 마련에 주력해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다문화가정 탈학교 자녀를 위한 '국제다문화학교'를 설립하는 일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탈학교 자녀는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약 2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설립 준비에 들어갔으며, 서울지역은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맺고 성동공고 시설을 일부 활용해 국제다문화학교를 병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기지역은 폐교를 활용해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 설립은 충북 제천에 위치한 구 폴리텍대학 활용을 확정하고 관계 기관 추진기획단을 운영해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 수요조사 결과 탈학교 청소년 82%가 입학할 희망했는데, 다문화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대국민 교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세요.



송석구 위원장과 장만기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으로 시민교육을 통한 소통과 대화의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통리더십 아카데미’는 대학생, 주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소통과 대화에 필요한 기본 인성을 함양하여 사회통합의 든든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소통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사회에 소통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소통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이 이번 과정의 목표입니다. 또한 일반시민들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들을 통해 바람직한 소통과 대화의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서울지역에 먼저 아카데미를 개설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우리사회에 소통의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도 가천의과학대 총장을 겸하고 계신데요. 최근 대학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의 발전을 이룬 것은 교육의 힘이 큼니다. 대학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온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특히 사립대의 역할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YS정권 당시 대학 인가를 늘려주면서 우리나라 대학은 입학정원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최근에는 지방대학의 학생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교 졸업생 수가 더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서면서 ‘지식의 남발’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산대사의 불교개론서인 선가귀감(禪家龜鑑)을 보면 ‘법유다의(法有多義)하고 인유다기(人有多機)하니 불방시설(不妨施設)이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사람에게도 온갖 기틀이 있

으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차이가 있는데 모두가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건 잘못이죠.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사회분위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외형을 키우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특성화에 중점을 두고 대학의 질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무조건 대학등록금을 인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질 좋은 교육을 시켜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올해로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36년간 CEO 및 국민들의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온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외부기관과 협력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인재교육 연구기관으로서 국민들의 교양 습득과 CEO들의 초찬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리더들의 학습문화 조성과 공공기관 아카데미 교육, 평생학습사회 주도 등은 위원회가 계획 중인 소통리더십 아카데미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향후 파트너십을 갖고 연구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희망합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송석구 위원장은...
1940년 생으로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철학 석.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동국대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이후 동덕여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가천의과학대 총장을 겸하고 있다.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을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위원장에 취임했다. 한국동양 철학회 회장, 한국철학회 회장, 전국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대학총장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FRIEND! GLOBAL IMAGE CARE(G.I.C)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형상 회복을 위한 수술전문 의료봉사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1995년, 이대병원 성형외과 출신 의사들 여러 명이 구순구개열(흔히 언청이라고 불렸다. 구순열: 입술이 갈라져 있는 기형, 구개열: 입천장이 갈라져 있는 기형으로 수유장애가 있으며 언어장애도 동반) 수술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 좌빈성이라는 곳으로 가서 60여 명의 환자를 수술했다. 하지만 열악한 현지 상황으로 인해 수술을 받기위해 병원에 왔던 모든 환자를 수술할 수는 없었다.

귀국 후 얼마 있다가 그 때 수술을 받지 못했던 환자 중 하나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자기 친구는 수술을 받고 시집을 갔는데 본인은 흉한 외모가 변하지 않아서 소외되었고, 그로 인해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삶의 희망을 잃고 극단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네쌍둥이 탄생 축복에 의료봉사 결심

2007년, 그로부터 12년 후 나는 한순간도 손을 놓을 수 없는 병원 일들을 뒤로 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그곳에 있는 입술, 입천장 갈림증 아이들을 수술하기 위해서였다.

미루고 미루었던 시험에 응해서 답안지를 제출하는 심정이었다. 의료봉사는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성형외과 운영이 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해외로 봉사활동을 하러 갈 경우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장기간 병원을 비우면 병원 매출의 감소는 물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환자 감소도 우려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7년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언약이자 축복, 선물과 은혜로 받은 네쌍둥이의 탄생 덕분이었다. 나는 결혼을 늦게 했는데, 자궁 외 임신을 두 번이나 경험하고 어쩔 수 없는 수술을 한 후라 체외 수정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엄마 나이가 이미 36세였으므로 산모의 건강뿐 아니라 아이들의 상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산모 나이가 35세 이상이면 기형아의 확률이 높아지는데 거기다가 네쌍둥이의 임신이라니...

우리 부부를 담당한 의사도 자신이 없다는 고백을 했고, 선택 유산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기도 중에 선물로 받은 아이들이라는 확신을 얻고 모두 낳기로 결정했다.

기형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사랑의 의술로 믿음과 희망을!
GIC는 더불어 사는 삶을 구현하려는 봉사자들이 기형, 질병, 빈곤,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의 아픔을 털어주기 위한 구호 및 지속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의료봉사단체다.



그리고 얼마 후 네쌍둥이가 최경량 몸무게로 태어났다. 비록 두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했지만 모두 건강한 채로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동시에 얻은 대한민국 9번째의 기적이 일어났다. 아무런 기형도 없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너무나 감사했다. 그리고 이 큰 축복을 받은 후 오래 전부터 미루었던 구순구개열 아기들을 도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저개발국가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이익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사랑의 의술로 믿음과 희망을 주는 GIC 설립

이후 이러한 의료봉사를 더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박관태 교수 등과 함께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형상 회복을 위한 수술전문 의료봉사 단체인 GLOBAL IMAGE CARE(사단법인, 이하 GIC, from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를 2010년에 설립했다. 산부인과, 성형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등의 의사들이 협력하여 일을 벌인 것이다.

GIC는 인류가 아름다운 형상(image)으로 만들어졌기에 상실된 아름다움과 건강을 회복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우리 회원들은 '기형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사랑의 의술로 믿음과 희망을 심어준다'라는 사명선언을 했다.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그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워 주고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믿을만하다는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그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열어 주고 싶었다. 또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우정(Friendship), 책임과 헌신(Commitment), 미래(Future), 협력(Collaboration)을 핵심 가치로 세웠다.

인디언의 언어로 친구의 뜻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는 것(Friendship)과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미(Commitment), 그들에게 믿음과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고 싶다는 것(Future), 그리고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중요시하며 많은 사람의 재능, 시간, 그리고 물질로써 함께하기를 원하는 의미(Collaboration)를 담고 있다.

GIC 활동을 하게 되면서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해외 환자를 도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절대 빈곤에 허덕이며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나라였다.

그 옛날 19세기의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도움은 차치하고서라도 한국 전쟁으로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고,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뤄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된 지금,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기에 이제 우리가 그 빛을 갚을 때이다.

사랑의 선순환을 기대케 하는 봉사활동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을 그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고, 그들도 또한 자라나서 남을 도와주는 사랑의 선순환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하는 것을 꿈꾼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인력이나 물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매번 느낀다. 많은 후원이 절실해 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KHIME**



지난 5월 에티오피아로 GIC 의료봉사활동을 다녀온 이정수 원장

● 이정수 원장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부속병원, 이화여대 부속병원에서 근무했으며, 동 대학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대한 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국제성형외과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영국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 및 Health Professionals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에서 인칭이 환자 무료수술 등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인요한
소장

“개화기와 기독교, 그리고 북한 이야기” 들려준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외국인진료소장

섬김 리더십 배우는 크리스천 CEO 최고위 과정
7월 12일 2기 종강 앞두고 섬김과 봉사 실천하는 리더들의 열기 더해져

나는 항상 태어난 고향 전남 순천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 기독교의 정신인 원칙과 사랑을 철저히 지켰던 손양원 목사이다. 1940~1945년 독립운동으로 광주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했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면직을 당한 인물이다.

원칙과 사랑 실천한 손양원 목사



1938년 9월, 평양교회에서 150명의 목사와 일본 순사가 참배를 하고 천황을 위해 기도했다. 손 목사는 원래 경남 출신이지만 지역감정을 넘어 전남에서 활동했고, 1947년 김구 선생이 소학교 교장 자리를

맡겼으나 거절하기도 했다.

이후 여수순천사건이 일어났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던 이 사건 중에 장남과 차남이 동기생에게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도 그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이 아닌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즉결심판에 넘겨진 살인범을 데리고 와 입양시키고 결국 전도사로 키워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공산당이 휩쓸고 지나가던 시절, 교회에서 마련해준 부산 피난길을 마다하고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또다시 여수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결국 인천 상륙작전 때 후퇴하던 인민군들에 의해 총살당했다. 인류 역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로 이렇게 원칙과 사랑을 지킨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사랑과 원칙이 인종과 모든 것을 떠나서 손양원 목사가 활동하는 무대를 만들어 준 것이다.

말보다 실천으로 북한 변화 이끌어야

북한 사람들은 1938년 평양교회 사건 이후로 기독교인들을 벌레처럼 본다. 신사참배에 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일성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결국 김일성에게 고스란히 도덕적 명분을 은쟁반에 올려서 준 격이다. 원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매일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다. 세련된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필요하다. 한국인이 가진 에너지의 80%는 ‘견제’이다. 단지 10%만을 창조에 쓴다. 이 에너지를 50%로만 올려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

은 순천 남쪽에서 왜적을 물리쳤으나 견제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이후로 거북선을 50척만 만들었어도 세계를 재패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련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전문가로 청와대에 자문할 때 “내가 북한이라도 핵을 만들겠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남한이 문제다”라고 한 적이 있다. 통일의 지름길로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실제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조선족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조선족’이라는 이름도 문제이다. 중국 교포들은 국내에서 3D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에 보내준다면 돈을 떼먹는 일도 많다. 여성들은 매춘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정착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오지만 희망이 없다.

북한은 자본주의가 썩었다는 것을 이미 배웠고, 이런 소식을 북한을 드나드는 중국 교포들을 통해 듣고 있다. 그들은 통일이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다. 불법체류자를 없애고 중국 교포들이 공식적으로 일하게만 해줘도 소문이 좋아질 것이다.

한국사회는 너무 빈틈이 없고 경쟁적이다. 그들에게 사회적 여지를 줘야 한다. 교회가 힘을 모아서 탈북자들도 일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예전의 교회는 정말 경건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도왔다. 기존 교회의 반대가 있지만 서울역에서 마이크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보다 밥퍼나눔운동처럼 노숙자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낫다. 말로, 기도로만 해서는 안 된다. 방법을 바꾸고 개혁해서 실제로 보여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재미**





김준규
검찰총장

찾아가는 서번트 리더십 김준규 검찰총장과의 대화시간

예수의 섬김리더십을 경영현장에 접목하고, 생활에서의 섬김리더십 실천과 봉사의 자세를 기르고자 개설한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CLA)가 정규 수업 이외에 '찾아가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디지털수사의 메카 DFC



2기생 40여 명은 지난 6월 7일,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고 법 집행기관인 대검찰청을 방문해 디지털포렌식센터(DFC)를 둘러보고, 김준규 검찰총장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일행은 디지털수사의 메카인 DFC 내 심리생리분석실에 들러 일명 거짓말탐지기로 알려진 심리생리검사의 원리와 각종 수사 사례에 대해 들었다. 문서감정실로 이동한 일행은 광학현미경을 통해 필체의 진위 여부 판단 과정을 살펴보고, 실제 원본 여부를 확인해보는 체험시간도 가졌다. 검찰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검찰 역사관에서는 근대 이전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최근까지의 검찰 모습과 시대변화상을 엿볼 수 있었다.

자리를 옮긴 일행은 김준규 총장과 함께 다과시간을 가진 후 김총장의 강연을 들었다. 그는 "헤이그 특사였던 이준 열사가 대한제국 1세대 검사였다"며 "이준 열사를 검찰의 롤모델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제로 검찰의 의식개혁, 변화, 혁신을 이끌기 위한 '트렌스포먼(T)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는 "검찰이 이미 상당 부분 국제화되었고 많은 변화를 이루었지만 일반 국

민들은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프랜들리 전략과 이미지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검찰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치유전략과 젊은 세대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차세대전략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상황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훈련을 하고, 검사들이 학교를 찾아가 강연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며 어려운 작업임을 토로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검찰 선진화 기여

그러나 김 총장은 법조계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위해서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총장은 강연 말미에 검찰의 인지수사와 특별수사 원칙에 대해 "공기업, 상장사, 공적자금 투입 기관, 고액의 부채 기업 등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업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CLA 2기는 지난 4월에는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5월에는 한국 최고의 전통과 권위로 기독교역을 담당하고 있는 CBS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번트 리더십'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재민**



인생항로를 설계하는 것은 20대에 해야 하는데

“성공은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미리 정하고, 그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LMI를 창립한 폴 J. 마이어의 말이다.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설계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삶의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는 것이 곧 성공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부닥치는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어려웠던 시절 우연히 선택한 장교의 길

내가 보냈던 10대 시절은 2차 대전 말기의 어려움과 6.25전쟁 전후의 혼란기여서 극심한 가난과 부도덕이 판치던 시절이었다. 나는 돈도 권력도 배경도 없는 어려운 환경의 한 가운데 던져져 있었다. 그때는 한 치 앞의 미래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세상이라 미리 인생을 예측하고 설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우리들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논산훈련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우국충정이나 애국심에서 군에 입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 할 수만 있으면 군에 안 가는 것이 좋고, 가더라도 후방 편안한 곳에서 군무를 마치기를 바라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바람이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나는 우연히 옆에 있던 친구의 권유로 갑종간부후보생 시험에 응시했고, 함께 응시했던 다른 친구들은 떨어지고 나만 합격통보를 받아서 광주에 있는 보병학교에 입교했다. 미리 의도하고 준비했던 일이 아니기에 장교가 되어야겠다는 목표의식도 없이 보병학교에 입교하게 되었던 것이다.

보병학교 교육과정이란 것이 단기간 내에 장교를 육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디기 힘든 훈련의 연속이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내게는 정말로 견뎌내기가 힘든 과정이어서 그 때 누가 내게 “퇴교하겠느냐”고 물었다면 서슴지 않고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보병학교에서 힘들었던 10주 과정을 마치고 포병학교에 입교했다. 포병학교 과정은 많이 달랐다. 지나간 10주가 가까워져서라도 낙제는 면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 세상만사 마음먹

기 달렸다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 거의 매일 반복되는 짜릿한 깔린 연병장을 팬티 바람으로 포복하게 하는 단체기합 정도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받았던 기억이 추억으로 남아 있다. 힘든 과정이기는 해도 해내야겠다는 마음가짐 덕분에 포병학교는 꽤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그런데 입관식을 마치고 육군 소위 계급장을 단 동기생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정작 나는 좋은 줄을 모르고 무덤덤하게 그 감격의 순간을 보냈다.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야망이나 목표를 자기 스스로 세워서 실행해 가야 이와 같은 순간이 보람도 있고 감동도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눈물겨운 삶으로 경제성장 이끌어

포병장교가 입관 후에 최초로 받게 되는 보직이 전방 관측장교였다. 나도 처음 3명의 관측병과 함께 전방 관측소(OP) 근무를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병사들이 킬킬대면서 손에 뭍 잔뜩 들고 OP로 들어왔다. 뭐냐니까 내놓는 것이 담배꽂초였다. 웬 것이냐고 물으니 화장실에서 주워왔다는 것이다.

당시는 장교와 사병 모두에게 하루에 화랑담배 열 개비씩이 보급되었는데, OP에 보급되는 담배 모두를 중대본부에서 안 주니까 꽂초를 주워 와서 피운다는 것이었다. 젊은 생각에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우선 장교인 내 것은 올려 보내게 해서 병사들에게 나눠 줬다. 나중에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화감에 나도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당시는 담배만이 아니고 먹을거리를 비롯한 의복, 침구 할 것 없이 돈이 될 만한 것은 정량보급이 안 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김종필 전 총리가 조선일보와의 대담(2011. 05. 11)에서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준다.

“그 당시 장군들을 ‘똥별’이라고 불렀다면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전 총리는 “정군 대상으로 추려진 장군들은 전쟁 중에도 공병들의 불도저·GMC(트럭)를 빼돌렸고, 전방 진지에서 소나무를 베어 후방 제재소에 팔아먹고, 병사들 휴가 보내면서 쌀 빼먹고 그랬어요. 별을 달고 도대체 독도법(지도 읽는 법)을 몰라요. 5만분의 1 지도에서 간격이 몇

개면 거리가 얼마다 하는 것을 몰라요”라고 말했다.

사실 그러했다. 내가 소위 임관 후에 전방부대로 배치 받아서 가니가 일반 장교들 중에는 'CONFIDENTIAL'의 스펠링을 잘 모르는 사람, 포병장교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사격지휘나 측지에 쓰이는 삼각함수나 10을 바탕으로 하는 상용대수의 원리를 잘 모르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당시 군대의 실상을 언급하다 보니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하는 말이지만 그런 대한민국이 오늘날에 오기까지에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낸 선배들의 눈물겨운 삶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는 것이 내 역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세월 따라 성장하도록 되어 있나보다. 공조직에서는 의무적으로 직급에 상응하는 보수교육을 받게 한다. 장교는 위관 장교 때에는 초등군사반교육, 고등군사반교육을, 그리고 영관장교 때에는 육군대학, 국방대학원 과정 등의 보수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된다. 나는 중간 중간에 이수한 보수교육 과정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편이다. 그 단계별 보수교육은 당연히 사람을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람은 세월 따라 성장해 간다”고 한 공자의 말씀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공자는 논어에서 30에 뜻을 세우고, 즉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40이면 주관이 뚜렷해지고, 50이면 하늘의 뜻, 즉 소명의식을 알게 되고, 60이면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되고, 70이면 매사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새삼스럽게 나는 이 말씀을 하신 공자가 존경스럽다.

나는 인생의 구비마다 이 사회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다. 내 마음속에는 혹독한 가난과 견디기 어려운 고생을 숙명처럼 견뎌내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신앙처럼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성숙해가는 것이 어머님께 효도하는 길이라고 다짐하며 살아왔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피동적인 사람보다는 사회를 올바르게 바꾸어 가는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차츰 변해 온 것 같다.

내가 군에 입대할 때 어정쩡한 자세로 임했던 것과는 달리 군에서 받았던 대우는 과분한 것이었다. 야전포병의 꽃이라고 하는 전방 포병 대대장의 임기 2년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2대 1의 경쟁률로 입교시험을 거친 육군대학도 4분의 1의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국방대학원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다. 국방대학원을 졸업한 덕으로 국방부에서 군 전력증

강계획, 속칭 울곡계획을 다루는 일도 할 수가 있었고, 육군 교역사령부 창설요원으로서 육군 최초로 무기체계 수명주기관리 모델(Weapon System Life Cycle Management Model)을 정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내 나이 스물넷에 육군 소위 임관을 하고, 24년 뒤인 48세에 전역해서 기업 경영 일선에서 일해 온 것이 30년째다. 8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지나간 군대생활 시절의 편린을 보면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지만 그때 젊음을 함께했던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건강한 오늘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아쉬운 인생 속에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돌이켜 보면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인 20대에 내 자신의 전도를 내가 계획하고, 정한 목표에 따라 젊음을 보냈더라면 인생의 굽이마다 감동도 있고 보람도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많이 아쉽다. 인생 20대쯤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를 스스로가 세워서 실행해 가야 순간순간이 보람도 있고 감동도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는 말이다. 그래도 요즘은 나는 지금이 행복하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군대생활을 할 때 그 혼란한 세상을 함께한 여러분들의 도움이 고맙고, 전역 후 30년 경영 일선에서 함께한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나는 지금이 행복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

다시 한 번 가슴 펴고 당당하게 나는 행복하다고 외친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좋은 세상이 아닌가? 서울의 공기 청정도가 제주도의 그것에 버금간다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한강물에서 만들어낸 아리수의 수질이 음료수로서 전혀 흠결이 없다는 이야기, IT기술 세계 No1, 경제력 세계 10위권 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다.

이 말은 나도 이 일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지나간 세월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 세상에 긍정적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더할 수 없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박춘봉**



●박춘봉 회장

1934년 생으로 24년간 군에 몸담으면서 국방대학원을 졸업했고, 야전포병 대대장, 국방부 방산국 등에서 근무했다. 군 전역 후 (주)이오시스템 임원을 거쳐 1991년 OA기기 및 감시용 카메라 분야의 고급 정밀 렌즈를 생산하는 부원광학을 설립해 30여년 현장에서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회원 소식]

- **서울특별시사회(회장 나현)**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황인한)를 방문하고 노인질환에 필요한 비타민제와 파스 등 5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신배 SK㈜ 부회장**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와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의 초청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사흘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15회 MS 최고경영자(CEO) 모임에 참석했다. MS CEO 모임은 MS가 매년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초청해 경제·환경·건강 등 광범위한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모임이다.

- **이베이 G마켓-옥션(사장 박주만)**은 지난 5월 19일 '2011 한국 최고의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일하기 좋은 기업'은 올해 5회째를 맞는 시상식으로 취업선호도와 근무환경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에서 G마켓-옥션은 경영활동, 취업선호도, 인재육성, 기업문화, 근무환경, 기업이미지, 사회공헌, 재무평가, 향후 성장성 등의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G마켓-옥션은 "업계 대표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통합적 복리 후생 정책과 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5월 24일, 베트남 호치민시 웨라톤 호텔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산학연 협의회 교류행사'에서 베트남 우의훈장을 받았다. 우의훈장은 베트남 발전에 공헌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훈장으로 박 이사장은 한국과 베트남 간 산학연 협의회 교류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수상하게 되었다.



- **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의 고객 맞춤형 금융솔루션 'IBK 온뱅크(ON-Bank)'가 지난 5월 26일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e금융상' 시상식에서 대상(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IBK 온뱅크 서비스는 온라인 제휴 점포와 회사 전용 온라인 은행, 모바일 고객지원 서비스 등을 한 곳에 묶은 패키지형 인터넷 기반 금융 서비스로 보통 은행들은 각 서비스를 따로 출시해왔지만 이번에 기업은행이 처음으로 통합 서비스를 내놨다.



-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와 대한한의학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5월 3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국산 한약재 보호 육성과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사는 국내 한약자원의 보호 육성, 국산 한약재 소비촉진, 우수 한약재 재배 유통, 농촌지역 한방 의료봉사, 한약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노력 등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 **한국콜마(회장 윤동한)**는 지난 5월 31일, 석오생명과학연구소를 서울구로디지털단지 대동포스타타워 1차 14층에 개소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석오생명과학연구소는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건강기능식품·천연물 등 관련 사업분야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재능교육 양병무 대표이사**는 지난 6월 2일 경남 통영시립도서관과 새마을문고에 아동도서 각 500권씩 1000권을 전달했다.



- **이석채 KT 회장**은 6월 7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국제통신학회(ICC) 2011'에서 국제 전기전자공학회(IEEE) 산업리더상을 수상했다. 정보통신분야 노벨상으로 불릴 정도로 권위 있는 이 상은 2001년부터 매년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진화에 기여한 지도자에게 주어지고 있다.



- **동북아평화연대공동대표 정태익**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6월 8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나무에서 숲으로'란 주제로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동북아평화연대는 2001년 10월 27일 창립해 지금까지 10년의 세월동안 동북아지역과 재외동포들에게 많은 발자취,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다음 10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동북아평화연대의 운동과 철학을 함께 공유하며 그늘에서 든든한 지지를 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한국아쿠르트(사장 양기락)**는

다문화가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효유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첫 행사에는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45명의 여성들이 한국아쿠르트 천안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이벤트는 7월 1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440여 명의 여성들이 참가 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 **한국FP협회(회장 윤병철)**는

지난 6월 13일 하나대투증권(사장 김지완)과 한국FP협회 사무실에서 고객들에게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외국인 성형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한국성형관광협회’**가 지난 6월 13일 성형외과 전문의들과 창립회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김영진 창립준비위원장**



(**김영진 김형진성형외과의원 원장**)이 초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되어 향후 협회를 이끌게 되었다.

■ **삼익THK(대표이사 부회장 심갑보)**는 지난 6월 16일 한국거래소 21층 회의실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다. 이번 IR을 통해 회사소개와 함께 경영실적과 영업현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코레일 대구본부 동대구역과 ‘철도와 함께하는 녹색생활’ 업무 제휴 협약식을 가지기도 했다.



■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은 지난 6월 18일 호국보훈의 달의 맞이하여 서초구 재향군인회가 주최해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61주년 기념식에서 본인이 작사하고 김덕이 작곡한 ‘천안함 노래’를 금은동 가수가 노래로 불러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셨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래 ‘아빠하고 놀자’ 노래를 작사(작곡 최영섭, 그림은 금강산 작곡가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이 지난 6월 21일 유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반 총장의 재선은 사상 첫 한국인 사무총장이 ‘동양적 리더십’을 인정받아 국제 사회의 전폭적 지지 속에 연임에 성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946년 유엔 창설 후 8번째 사무총장인 반 총장의 첫 5년 임기는 올해 12월 말로 끝나며, 2기 반기문 체제는 내년 1월 1일 출범한다.



■ **인사관리 토탈 서비스 기업 조인스 HR (대표 이재산, 양병만)**이 주최하고,

이노비즈협회, 중앙경제가 후원하는 ‘조인스HR 하계세미나’가 지난 6월 23일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모든 조직 내에는 성과를 창출하고 리드하는 고성과자(high-performer: A-player)가 있으며,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과자(low-performer) 또는 성과부진자(C-player : 저성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에 이번 조인스 HR 하계세미나에서는 저성과자 진단, 관리 및 역량개발의 해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성과자들에 대한 전략적 운영방안은 무엇이고, 왜 저성과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우수 기업사례를 통해 자사 적용의 시사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세계재난구호회(사무총장 김영후)**

의 2011 하계 글로벌봉사단 5기 중국팀이 6월 27일 중국 연길로 출발했다. 이번 봉사단이 활동할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작년 7-8월 대홍수로 50만 명의 이재민 발생과 가옥 6천 700여 채 붕괴, 가축 1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6천4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던 재난 피해지역이다.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일부 가옥이 신축됐으나 지원이 미치지 못한 수많은 가옥과 시설물은 아직도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봉사단은 피해지역 중 한 곳인 안도현 만보진 공릉촌의 마을회관을 건축하는 건축봉사와 지역소외계층을 돌보는 지역봉사 후 7월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 **(복해동재단 장찬기 회장)**은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HPM) 동창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총동창회는 보건대학원동창회, 보건학박사회를 비롯하여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식품 및 외식산업 보건최고경영자과정의 회원 상호간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공중 보건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



로 설립됐으며, 현재 특수과정을 포함하여 약 5,000여 명의 회원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한화케미칼사장 홍기준**은 자체 개발 중인 바이오 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HD 203'에 대한 글로벌 판매 계약을 미국 머크(Merck)사와 체결했다. 'HD 203'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엔브렐(Enbrel)'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이번 계약에 따라 당사는 공동으로 글로벌 시장 판매를 위한 개발과 상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한화케미칼은 초기 계약금 외에 사업 진행 경과에 따른 추가 기술료 및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받게 된다.



■ **전능아이티(회장 박용팔)**는 신제품 '전능 스마트닥터 시리즈'를 소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닥터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본 홈페이지는 스마트 차트, 문진, NC, 클리닉, 병원찾기, 보안(6가지 제품)에 대한 소개부터 질의응답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 www.smartdoctor.kr에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



■ **김창송 성원교역(주) 회장**은 무역 50년, 결혼 50주년, 80 인생을 회고하는 수필집 (비바람이 불어도)를 출간했다. '비바람이 불어도'라는 제목에서도 짐작되듯이 이 책에는 수출입 판로를 열기 위해 80여 개국, 지구 30바퀴를 돈 실행민 CEO의 무역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어떤 어려움도 지혜와 끈기로 헤쳐 나가면서 사업을 성공시킨 체험담은 후진들에게 생생한 길잡이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인간개발연구원과 CBMC 활동을 통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창송 회장의 수필집 출판을 축하드린다.



■ **정이안 정이안한의원 원장**은 최근 (자연이 만든 음식재료의 비밀)(21세기복식을 출판했다. 본 도서는 한의학의 기본으로 한국인의 몸에 좋은, 지금껏 건강을 지켜온 음식 100가지를 골라 어떤 체질에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언제 먹고 어떻게 먹어야 몸에 가장 좋을지를 알려준다.



■ **유한김벌리(사장 최규복)**는 '숲 체험 여름학교-그린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그린 캠프는 강원도 양양에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 2회(3박 4일)에 걸쳐 진행되며, 여고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자는 7월 12일까지 유한김벌리 '우리숲 웹사이트(www.woorisoop.org)'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이호조 前 성동구구청장의 차남 승환군**의 결혼식이 지난 6월 4일(토) 서울 대연지니어 하우스 라쿠치나에서 있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정만우 (주)실버텍스 대표의 장녀 진이양**의 결혼식이 지난 6월 27일(월) 코엑스 컨벤션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있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회사명	이름/직함	창립기념일
세비앙주식회사	류인식 대표이사	7월 1일
[주]티아이에스	유철진 회장	7월 1일
眞德建設(株)	차영준 회장	7월 4일
[주]다비옥중	윤희진 사장	7월 5일
우드뱅크	전창윤 회장	7월 5일
[주]서문문화사	심상기 회장	7월 7일
[주]태창플랜트	송언기 회장	7월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최민형 상무	7월 15일
KCTC	이윤수 대표이사 부회장	7월 20일
일우선박(주)	서정권 회장	7월 27일
기업은행	조준희 은행장	8월 1일
새한신용정보(주)	지광윤 회장	8월 1일
썬테일러	우덕성 사장	8월 1일
농업법인조인주식회사	한재권 사장	8월 2일
영우통상(주)	양대길 회장	8월 14일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	8월 15일
Big Dream & Success	공헌수 사장	8월 27일

[신규회원]

■ 이철우 롯데쇼핑(주) 롯데백화점 대표이사(법인회원)

롯데쇼핑은 1979년 설립 이후 백화점에서 시작하여 마트, 시네마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으며, 현재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유통기업이다. 또한 롯데백화점은 소공동 본점을 포함하여 전국에 38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 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동 1번지
- 전화: 02-771-2500
- 홈페이지: <http://lottesshopping.com>

■ 차문현 우리자산운용(주) 대표이사(법인회원 전환)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은 적립식 펀드, ETF, 뮤추얼펀드 등 테크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기대수익으로 인해 펀드투자에 대한 위험을 간과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투자정보와 운용성과를 제공하는 평생자산관리 파트너사이다.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여의도파이낸스타워 9층 (구, 동양증권빌딩)
- 전화: 02-789-0300
- 홈페이지: <http://www.wooriam.com>
- 참여임원: 차문현 대표이사, 권준 부사장, 차성영 전무, 오창균 상무, 장동현 전무

■ 성찬훈 (주)지성해운 대표이사(개인회원)

지성해운은 글로벌 해운사업을 이끌어가는 국가 대표 해운기업으로 냉동참치 운반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 주소: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동원빌딩 301호
- 전화: 02-734-8455 / Fax: 02-734-8456
- 추천인: 박이락 (주)성한트랜스텍 대표이사

[소모임 소식]

■ MS클럽 수료자 전체모임

CEOM미디어스피치 과정의 수료자 전체 모임을 가진다. 지난 6월 16일, 각 기수 회장이 모여 수료자 전체 모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아래와

같이 수료자 전체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장소는 3기 회장인 심기석 세일이엔에스 대표이사께서 후원할 예정이다.



- 일시: 2011년 8월 24일(수) 오후 6시
- 장소: 세일이엔에스 세일아트홀(역삼동)
- 문의: 민선아 차장 (Tel. 02-445-1948)

■ **골프모임 인경회(회장 이용국 / 총무 이종원)**는 초여름 날씨를 시원하게 해줄 6월 정기 모임을 한양CC에서 가졌다. 이후 모임은 인간개발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제29회 제주 CEO 섬머포럼 '인경회 회장배 골프대회'로 대체된다. 인경회 회원들의 제주 CEO 섬머포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석여부: 총무 이종원 (H.P. 010-5306-8587)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회장 김창송 / 총무 이계옥)** 6월 모임은 지난 13일 문학의집 서울에서 손광성 수필가를 모신 가운데, 수필쓰기 수업으로 진행했다. 7월 모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일시: 2011년 7월 18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문학의 집 서울 산림문화관 2층홀
- 문의: 정용달 팀장 (Tel. 02-445-1949)



■ **다락회(회장 정태익 / 총무 이종원)** 7월 모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일시: 2011년 7월 12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1층 그랑카페
- 참석여부: 총무 이종원 (H.P. 010-5306-8587)

■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홍승국)** 7월 모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일시: 2011년 7월 19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명동 로얄호텔 21층
- 참석통보: 총무 홍승국 (H.P. 010-5305-3378)

■ YCF(회장 황광석 / 총무 안정욱) 6월

모임은 지난 14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계 최고의 비보이 팀 '고릴라 크루'의 가슴을 울리는 리얼 스트리트 댄스 퍼포먼스 공연관람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원소식]

■ 최재형장학회 창립총회&기념세미나 개최

본원 회원들이 주도하여 CEO이자 항일독립운동의 대부였던 최재형 선생의 높은 뜻을 선양하고, 고려인 동포사회의 발전을



을 선도해나갈 고려인 대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최재형장학회(회장 김창송, 부회장 박준봉, 전상백)'를 창립해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장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열고 대륙의 영혼 최재형 선생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성원교역(주), 부원광학(주),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가 후원해 이루어졌다.

■ 한러친선협회 임원 친선 조찬모임 개최

한러친선협회(이사장 장만기 / 회장 손경식은 이규형 주 중국대사전 주 러시아 대사, 신각수 주 일본대사전 외교통상부



1차관의 취임축하를 위한 임원친선교류회를 지난 6월 23일 롯데호텔 아테네가든에서 개최했다. 이번 모임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박창규 롯데건설 사장, 신박제 NPX반도체 회장,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 김상열 OCI 부회장, 박성훈 모간 사장, 문종금 대한삼보연맹 회장, 도재영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한중일의 협력을 위한 외교, 그리고 한러관계에 대해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강연 오프닝 시작

본원은 매주 목요일 개최하는 조찬세미나의 오프닝 분위기를 쇄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른 아침 참석하시는 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선물로 준비하고 있는 조찬이벤트에 다양한 재능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민선아 차장 Tel. 02-2203-3500)

① 한국웃음연구소와 함께하는 웃음선물 _제1694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한국웃음연구소의 정광운 전임교수는 조찬에 앞서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CEO 유머의 시간을 가졌다.



② 송난영 소프라노의 음악선물 _제1696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송난영 소프라노는 숙명여대 성악과에 재학 중이며, 뮤지컬 <그리스>, 전주 소리축제 및 서울 대중상영화제 축하공연 등에 다수 출연했다.



③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의 음악과 시상송 선물 _제1698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공한수 사장이 작곡한 노래 '천안함 노래'와 작사한 '6월에...'를 들려주는 시간과 김성문 선생의 대금 연주 시간이 이어졌다.



- 노래 : 천안함 노래 [작사: 공한수, 작곡: 김덕, 노래: 김은동, 섹스폰 연주: 김덕]
- 시상송 : 공한수, 대금연주 : 김성문

이벤트 선물

1. 김석문 신일팜글라스 대표이사 의 <도르만스 커피> 선물

※ 김석문 대표이사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에 도르만스 수프림 인스턴트 커피를 매주 5박스씩 협찬해주고 있습니다.



2. 재능교육(대표이사 양병무)은

교육부터 리빙까지 다양하고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여성잡지 <맘(Mom)대로 키워라> 7월호를 선물로 드립니다.

3. 김성만 기업은행 지점장은 MBC 표준FM 오전 9시 5분에 양희은, 강석우가 진행하는 여성시대의 이야기를 모은 월간 <여성시대>를 매월 참가자에게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DMP(The Drucker Management Path)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인간개발 경영대학원 창설의 꿈

1993년 글을 쓰기 시작해 2003년 공식 데뷔한 작가 이지성은 그동안 스무 권이 넘는 책을 출간하며, 총 15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특히 '세상을 지배하는 0.1%의 인문고전 독서법'이라는 부제가 붙은 그의 최신작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리더십의 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한국 사회에 희망의 등불이 되기에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처칠, 에디슨이 사고몽치에서 위대한 천재로 탈바꿈한 비결, 돈 재들만 가던 삼류 학교 시카고대학이 노벨상 왕국이 된 사연, 카네기와 워렌 버핏, 이병철과 정주영이 황금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알렉산더대왕, 세종, 정조 등 위대한 국가경영자들의 공통점과 그 비밀을 작가는 모두 인문고전 독서에서 찾고 있다.

오는 7월 14일, 1700회를 맞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가 창설된 뜻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기업가와 경영자들이 경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깨달음에 연유한 인간개발연구원 창설의 뜻과 맥락을 같이 한다.

기업가와 경영자들이 1970년대 세계 최빈곤국이었던 한국을 성장 발전에 이르게 하는 길은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고, 인적자원 개발의 길은 교육에 있고, 그 교육은 무엇보다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모티ベーション 등 '인간교육'에 달려 있다는 판단으로 다학문적 접근의 교양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것이 아침 공부모임인 목요초찬회이다.

1975년 2월 5일 시작한 최고경영자를 위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당시, 인간개발연구회)가 36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온 것이 7월 14일에 1700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지난 1000회 연구회에 이어령 박사를 초청해 '20세기와 21세기의 한국과 인

간개발의 과제'라는 주제로 연구회를 개최했고, 오는 1700회에 이어령 박사를 재초청해 '창조는 문화 인터페이스 혁명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인간개발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선택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리더십의 과제를 탐색하게 된 것이다.

1700회의 연구회 실적과 4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연구원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인간개발(TPT, Total People Technology) 리더십 교육을 위한 경영대학원을 창설하고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대적 요구를 담은 프로그램을 탐색해 왔다.

그러던 중 피터 드러커 교수가 96세의 일생 동안 남긴 39권의 경영학 고전에 담긴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융합한 21세기형 경영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인문고전 중심의 미래 인재 교육을 열어가기로 했다.

드러커 교수는 그의 생전에 세계적인 영웅, 거목, 석학, 철인, 현인 등의 존칭을 한 몸에 누려도 어색함이 없는 위대한 학문적 업적과 인생의 열매를 거두었다. 특히 드러커 교수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면서 불과 30~40년 만에 세계 10위 안팎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강의 기적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한국의 기업가와 경영자, 그리고 학자들을 따스한 애정으로 격려하기도 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경영학의 대가로서 인문고전적 지위를 확고하게 남기고 간 업적을 근거로 한 DMP(The Drucker Management Path)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간개발 경영대학원을 열고 21세기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나가자 한다. DMP 프로그램의 한국 대표 기관으로 협력 관계를 맺고 인문고전 중심의 경영자 교육을 열어가자 하는 것이 인간개발연구원의 새로운 도전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세계 인류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문고전 500여 권을 바탕으로 만들어 낸 폴 J. 마이어의 LMI프로그램 철학에 담긴 리더십 정신을 기초로 하여 다학문적 접근의 다양한 교육을 펼쳐온 경험으로 드러커 교수의 인문고전적 업적의 결실인 DMP 프로그램을 도입, 발전시켜 나가자 한다. 드러커 교수의 철학과 사상이 남긴 DMP 프로그램과의 협력에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

심을 바란다. **김제민**



2011년 아카데미 본격 궤도 올라

뜨거워지는 날씨만큼 평생교육 열기 전국으로 확산되며 상반기 성료

〈교육컨설팅소식〉

■ 50여 개 아카데미 계약 완료, 열기 더해가는 지방자치아카데미



6월 여름이 다가오며 뜨거워져가는 햇볕만큼이나 본원과 함께하는 전국 지방자치아카데미의 열기도 더해가고 있다. 현재 서울시 종로구와 송파구를 비롯하여 충청권의 제천과 부여, 영남권의 군위와 청도, 호남권의 무안과 고흥 등 약 50여 개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완료했으며, 기타 다수의 지자체와 활발한 교육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9일 날씨가 증가하는 프로야구의 관심으로 서울 강서구에서는 양준혁 SBS해설위원을 모시고 “담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경북 상주에서는 한일관계 연구를 위해 한국으로 귀환한 호사가 유지 세종대 교수를 모시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21일 고창의 “21세기 고창미래포럼”에서는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올바른 삶에 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평창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윤강로 국제지문역을 모시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점검의 시간을 가졌으며, 6월 24일 완도 “청해진아카데미”에서는 김덕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모시고 신명나는 사물놀이 한마당을 진행했다.

■ 리더십, 조직의 변화와 혁신, 자기계발을 위한 정기교육 진행

기업 정기교육은 리더십을 기본으로 변화와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재능교육에서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 대표, 조서환 세라젬헬스앤뷰티 사장이, 리바트에서 서두칠 전 동원시스템즈 부회장이, 대웅제약 경



남지역본부에 이금룡 코글로닷컴 회장 등이 강연에 나섰으며, 한진해운은 직원영어특강에 이근철 유어에듀 대표를 모시고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공공기관 정기교육에서는 JDC와 함께 하고 있는 ‘글로벌아카데미’가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대학에서 각각 열렸는데, 김윤종 꿈.희망.미래재단 이사장, 이금룡 코글로닷컴 회장, 도종환 시인, 고승덕 국회의원 등이 강연에 나서 제주지역의 명품아카데미로 자리 잡은 글로벌아카데미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LH공사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 특강에는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장, 신상훈 작가, 김병조 조선대 초빙교수 등이 전국을 돌며 7월 초까지 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의 포스트아카데미에는 홍양표 한국좌우뇌교육개발연구소장과 대금연주가 이생강 선생이 강연에 나서 자녀교육과 우리 전통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 선진육군아카데미, 김진현 위원장 초청 특강 가져



김진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이 선진육군아카데미 특강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일류국가의 비전에 대해 설파했다. 김 위원장은 5월 25일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아카데미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 근대 화혁명의 성공과 새 도전, 새 기회”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 독립한 140여 제3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근대화 혁명’ 국가”라며, ‘국력=평화역량=안보역량=통일역량’ 등이 수렴되고 체화되어야 인류평화에 이바지하는 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이 육군본부 강연에 나섰으며, 국방부 MND아카데미에서는 이금룡 코글로닷컴 회장,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기세범 기자자동차 부장 등이 강연에 나섰다. 2006년부터 시작된 군부대 아카데미는 군의 지식학습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사회적 트렌드와 창조적인 업무수행 역량 고취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컨설팅기관 소식〉

■ 우정사업본부, 아태지역 우체국금융 연수 개최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통)는 6월 7일-11일까지 5일간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정의 금융 핵심직원들

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우정 연합체인 아태우편연합(Asian-Pacific Postal Union, APPU)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싱가포르, 인도, 태국 등 15개 국가 우정의 금융직원들이 우리나라 우체국 금융사업의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배우고, 정보화 발달 모습 및 현장을 견학하고 돌아갔다. 2006년 이후 네 번째를 맞는 금융연수를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아태지역 회원국의 금융사업 발전을 위해 우체국 금융콜센터 운영시스템 등 한국 우체국 금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례와 경험을 집중적으로 전파했다.

■ JDC,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변정일)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JDC는 지난 6월 22일,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

문화를 실천한 점이 인정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JDC는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 및 로드맵에 따라 상생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전 직원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또 모성보호위원회와 임신육아 아카데미를 운영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JDC는 향후 노사문화대상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의 행정우대,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상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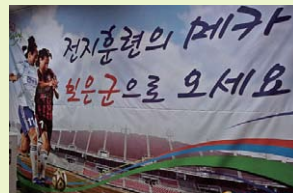
■ 강서구,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주민의 일자리는 지역에서 찾고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관내 대형 공사장, 기업 등을 찾다니며 신규 일자리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갈도록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이를 위해 NC(뉴코아)백화점 강서점과 지역 일자리 창

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의 신규 고용인력 채용에 있어 강서구민의 채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지역주민 고용 확대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 보은군, 여자 축구 올스타전 개최 '스포츠 메카' 자리매김



충북 보은군(군수 정상혁)이 여자 축구 실업리그에서 뛰고 있는 별들의 잔치인 'WK리그 올스타전'을 유치하는 등 여자 축구의 메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수년 전부터 대전과 충남북 육상 선수단을 숙리산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한 보은군은 지난해부터 여자 축구 실업리그를 비롯해 장사씨름대회, 전국 중교 육상경기대회 등 크고 작은 대회를 공격적으로 유치했다. 이 같은 군의 노력으로 전반기 WK리그가 열리는 동안 보은공설운동장에는 매 경기마다 2000-4000명의 관중이 몰려드는 성과를 거뒀다.

■ 종로구, e-라이브진 서비스 실시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중)는 구민들에게 스마트폰 기반의 'e-라이브진' 서비스를 시작했다. e-라이브진은 기존의 종이나 이메일로 받

아보던 각종 소식지를 스마트폰에서 e-book(전자책)의 이미지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종로구는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를 발 빠르게 준비해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으며, 매일 25일 발간하는 종로구 소식지 '종로사랑'도 스마트폰으로 만나볼 수 있다.

■ 함양군, 귀농-귀촌 정착 프로그램 큰 인기



경남 함양군(부군수 허종구)이 도시민의 귀농에 대비해 체계적인 성공정착 프로그램을 지원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지원센터' 운영과 귀농에 필요한 기초정보, 이주 실행을 위한 맞춤형 상세정보, 정착에 필요한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 보은군은 앞으로도 귀농의 조기정착을 위한 빈집 및 농지 알선,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 등의 지원과 함께 희망할 경우 농촌문화탐방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귀농 후 이웃과의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 영농기술습득을 위해 선도 농가와 1:1 멘토링의 영농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1 JEJU CEO SUMMER FORUM

CEO, 세상을 움직이는 마에스트로 창조적 영감과 마르지 않는 열정을 지휘하라!

- 일정 : 2011년 8월 3일(수) ~ 8월 6일(토) 3박4일
- 장소 : 제주 롯데호텔
- 주최 : 인간개발연구원 /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경제신문 / YTN
- 참가대상 : 기업, 기관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과 가족 400명
- 참가문의 : 02-445-1946~7

세계경제의 진화와
신아시아경제의 메가트렌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이신 CEO 여러분,
창조적 영감과 열정으로 미래를 지휘할 CEO 여러분들을
최고의 지혜여행, 2011 제주 CEO 섬머포럼에 가족과 함께 모십니다.

이번 포럼은 인간중심의 새로운 시선에서 경영의 지혜와 성장의 동력을 발견하는 색다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인간은 수없는 진화를 거쳐 지금의 황금시간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황홀함과 함께 동시대에 느껴야 하는 그림자 또한 우리의 진화 속에서 함께하는 아픔들이 아닌가요 합니까. 과연 창조적 진화란 무엇인가? 새로운 G2 시대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수많은 질문 속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감성과 문화를 통해 창의 경영을 충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순조로운 도전과 100년 기업으로 가는 희망의 항해를 다양한 분야의 멘토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하는 포럼 구성으로 기업의 성장과 함께 균형 잡힌 인생의 성공을 위해 3박4일 동안 가족의 행복을 더하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희망의 여행에 함께하셔서 비전과 경영, 행복한 휴식을 동시에 나누는 시간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일차 프로그램 : 8월 3일 수요일

대한민국 창조적 진화의 전략

일정	프로그램
참가자등록 및 체크인	
15:00-15:10	[개회사]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윤계섭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
15:10-16:10	[기조강연] ● 은하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숨은 선진 한국의 꿈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16:20-17:20	[인재강연] ● 글로벌 시대의 '인재혁명'을 말한다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17:30-18:30	[인문학특강] ● 비움과 채움 그리고 나눔 공지영 작가
18:40-20:00	<환영만찬> ● 한여름 밤 푸른 제주의 낭만! 참가자 친교한마당 스타마술사 오은영과 함께하는 매직 판타지쇼

※2일차 프로그램 : 8월 4일 목요일

CEO, 창조적 영감으로 경영을 재구성하다

일정	프로그램
7:00-12:00	2011 제주 CEO섬머포럼 골프대회 / 제주자유관광
12:10-14:20	점심식사 및 자유시간
14:30-15:30	[스마트경영1] ● 새로운 ICT 패러다임과 Governmen / Enterprise 3.0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15:40-16:40	[스마트경영2] ● 새로운 성장동력, 스마트 영역에서 찾아라 이상철 LG U+ 부회장
16:50-17:50	[스마트경영3] ● 스마트 경영혁명시대의 과학기술 미래 곽재원 중앙일보 대기자
18:00-19:00	[스마트경영4] ● 스마트 시대의 금융전략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건강강좌] ● 뱃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조흥근 연세조흥근내과 원장
19:00-	개별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
20:00-21:30	[간담회] ● 차세대 IT와 스마트경영을 위한 정책과 기업의 비전 통신, IT, 게임 등 방송통신 관련 기업 대표자 좌담

※3일차 프로그램 : 8월 5일 금요일

동아시아시대, 새로운 꿈을 꾸다

일정	프로그램
07:00-12:00	인경희 회장배 골프대회 / 제주자유관광
12:00-14:20	점심식사 및 자유시간
14:30-16:10	[대토론회] 신아시아 경제시대의 준비 ● 동아시아시대의 준비와 한국 좌장/발제1.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 아시아 협력기금 창설 추진 발제2. 이명성 중국기업연합회 부이사장 ● 일본의 아시아 협력시대의 준비와 비전 발제3. 나가이 카즈유키 일본 주오대 총장
16:20-17:40	[중국경제] ●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와 중국경제의 아시아화 발제1. 후안강(胡鞍鋼) 칭화대 교수 발제2. 조순 전 경제부총리 /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17:50-19:00	[환경경영] ● 지구환경 재난 극복과 인류의 지혜 발제1. Luc Gnacadja UNCCD 사무총장 발제2.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드 대표 [부동산전략] ● 노후보장의 창조자산, 부동산 투자전략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19:00-20:00	만찬 & 골프대회 시상식
20:00-21:00	<퓨전 콘서트> ● 바이올리니스트 노엘라와 함께하는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

※4일차 프로그램 : 8월 6일 토요일

자본주의, 자연과 생명을 만나다

일정	프로그램
07:00-09:00	아침식사 및 체크아웃
09:00-10:00	[인문학특강] ● 질주하는 사회, 성찰하는 삶 도종환 시인
10:10-11:50	[대토론회] ● 자연자본주의와 생명자본주 신성장동력: 환경경영의 메가트렌드 발제강연 : 김영호 유한대학 총장 / 전 산자부 장관 대토론 :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한국벤처농업포럼 회장
11:50-12:00	클로징 리마크 & 폐회인사
12:00-	제주공항 이동

CEO 미디어 스피치 4기 수료

성공하는 리더들의 미디어 스피치



말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언어는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람의 육체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때로는 행동을 지배하기도 하고 환경과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며 자아상을 바꾸기도 한다.

‘CEO 미디어 스피치’ 큰 성원 속에 4기 마쳐

본원과 봄온커뮤니케이션이 주관하고 있는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이 4기 수료식을 가졌다. 4기 과정은 5월 2일 개강해 30일까지 총 5주간 진행됐다.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은 최근 기업의 위기 상황을 CEO의 적절한 미디어 스피치 대응으로 극복하거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보면서 CEO라면 꼭 배워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디어 스피치는 카메라 앞에서만 말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은 의사소통이고,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평소에 긍정의 언어를 습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디어 스피치란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미디어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사회에 긍정적이며 공익적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총 5회의 수업으로 진행되는 본 과정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론수업, 방송녹화 실습, 그리고 모니터링 피드백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어 참가자들로부터 효과적인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본 과정에서는 강사도, 스텝도, 참가자도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참가자는 전문가로부터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코칭 받게 되고, 강사와 스텝은 참가자들의 삶과 경영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들으면서 그들 삶의 소중한 지혜를 전수받게 된다.

정현중 시인의 시 ‘방문객’에는 이런 글이 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머머만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수료 이후 더욱 강해지는 인적 네트워크

월요일의 모든 약속을 미루고 수업에 참석해주신 김영덕 (주)유섬 회장, 강흥구 농협중앙회 상무, 최인숙 마리인터내셔널 대표, 고성학 한국정보인증 대표, 전주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올라와 수업에 참석한 함정희 함씨네 토종콩 대표, 해외 봉사활동으로 1회 차 수업에 빠지게 되자 사모님을 대신 참석하게 했던 이정수 봄성형외과 원장 등 이번 4기 과정에 참여한 모든 CEO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린다.

특히 4기 회장을 맡은 김영덕 회장은 매주 월요일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느라 참여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을 덜고자 수료자들을 회사로 초대해 저녁 만찬을 제공하는 등 본 과정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모임을 통해 4기 수료자들은 본원의 제주 CEO 섬머포럼에 참여해 3박 4일을 함께 하는 것으로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또한 함정희 대표의 초청으로 9월 24일 전주 함씨네밥상을 찾아가는 만남을 약속하기도 했다. 매주 월요일의 셀레는 만남은 끝났지만 앞으로 4기 수료자들의 소중한 만남의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혜미**

2011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

■ **강좌명** : 2011 CEO 미디어스피치 과정

■ **일 시** :

일정	시간
8월 22일 ~ 9월 26일	매주 월요일
10월 17일 ~ 11월 14일	☞ 오후 7시-10시

■ **장 소** : 봄온커뮤니케이션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40-1 적암빌딩 6층)

※ 주차는 가까운 창천공용주차장을 이용가능

■ **대 상** : 10명(기업의 CEO 및 임원, 그리고 전문직업인)

■ **특 징** : 최고 리더를 위한 1:1 맞춤 스피치 교육

시각언어, 음성언어, 미디어 언어를 통합한 멀티스피치의 영상 실습

매 강의 시 동영상 녹화 실습과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스피치 구현

(방송인터뷰 출연, 미디어 위기 대처 Speech)

■ **교육비** :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170만 원 / 예비회원 200만 원

※부가세면세

■ **진행순서** : ① 주제강연 ② 방송실습녹화

③ 녹화영상 모니터링 및 피드백

■ **교육커리큘럼**

일정	내용
1회차	Step 1. 미디어 스피치의 이해 1부 - 미디어 스피치의 이론과 실습(1시간) 2부 - '지금은 미디어 스피치의 시대' 녹화 모니터링(2시간)
2회차	Step 2. 효과적 음성표현과 CEO의 교양 스피치 1부 - 음성표현 이론, 교양 스피치 이론과 실습(1시간) 2부 - 'CEO의 삶과 경영' 녹화 및 모니터링(2시간)
3회차	Step 3. 기업과 경영의 윤택유, 유머스피치 1부 - 유머스피치, 이론과 실습(1시간) 2부 - '유머로 경영하라' 녹화 모니터링(2시간)
4회차	Step 4. 공식석상의 위기대처와 시사스피치 1부 - 미디어 위기대처 및 시사스피치(1시간) 2부 - 'CEO 시사토론' 녹화 모니터링(2시간)
5회차	Step 5. 가족과 직원에게 전하는 감동과 설득 스피치 1부 - 상대를 움직이는 감동과 설득이론(1시간) 2부 - '사랑하는 직원과 가족에게 전하는 영상메시지' 녹화 모니터링(2시간)

※ 방송일정에 따라 강사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인간개발연구원 민선아 과정(Tel. 02-445-1948)

봄온커뮤니케이션 institute 강창진 강사(Tel.02-706-5144)



두뇌 장수학과 치매예방



●서유현 교수

1948년 생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신경약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의과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신경과학 연구소장, 인지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과기부 지정 치매정복 창의연구단장, 대한신경퇴행성질환학회 회장, 한국뇌연구원 추진기획단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저서로 <잠자는 뇌를 깨워라>, <나는 두뇌짱이 되고 싶다>, <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엄마표 뇌교육> 등이 있다.

치매란?

치매(Dementia)란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써 '제 정신이 아닌(out of mind)'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분류에 의하면 '치매'는 뇌의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하나의 증후군으로 대개 만성적이고 진행성으로 나타나며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력, 계산능력,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뇌기능의 다발성 장애로 일컬어진다.

요컨대 이전에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유지해 오던 사람이 선행 원인이 없거나 후천적인 뇌질환으로 인해 점진적인 기억력 장애 및 다른 지적 능력의 상실로 더 이상 통상적인 사회생활, 직업적 업무수행 또는 대인관계 등을 적절히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치매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치매는 크게 선행원인이 없는 노망이라고 알려진 알츠하이머병(60% 이상)과 뇌졸중 후유증으로 오는 혈관성치매(20~30%)가 있다.

노인인구와 치매발생률

최근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1.3%이다. 우리나라는 노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이다. 7%가 넘어가면 그 사회가 고령화 사회, 14%가 넘어가면 고령사회,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경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가 치매에 이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5세가 되면 20%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85세가 되면 치매 발병 가능성이 50%로 증가한다. 우리나라 남자 평균수명이 76세이고, 여자는 82세이다. 평균 79세인데, 일본은 여자 86세, 남자 80세, 남녀평균이 83세이다. 부부가 85세까지 같이 살고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은 치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치매 환자가 약 50만 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어서 등록된 암환자 수를 초과하고 있다. 앞으로 2026년경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리라 예상되고 있어서 2008년 9월 21일 세계 치매의 날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65세 남녀비율이 1:2, 85세 남녀비율은 1:4, 100세 되면 1:7이다. 여자가 더 오래 사는 이유는 적응력이 좋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자들도 여자들처럼 적응력을 증가시키면 치매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

치매의 발생원인

이 병의 특징적인 병리 소견은 독성 아밀로이드 단백질들(베타아밀로이드와 C단 단백질 등)이 모여 만든 노인반(Neuritic plaques)과 신경세포 안에서 신경원이 과

인산화 된 타우 단백질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꼬여 있는 신경 섬유덩어리(Neurofibrillary tangles)이다.

아직까지도 왜 뇌세포가 죽어 가는지 완벽하게 밝히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아밀로이드 C단 단백질과 인산화 된 타우 단백질과 같은 독성단백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들이 사고력을 담당하는 뇌 세포를 손상시킴으로써 치매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치매 위험인자

- ① 나이 :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
- ② 가족력과 유전 : 치매환자의 10% 내외는 유전이 되는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까운 친척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은 널리 인정받고 있다.
- ③ ApoE-4형 :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계하는 아포리포단백질 E4(APO E4)형을 가진 사람이 E2나 E3형을 가진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위험이 적어도 3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정상인의 5~10%는 E2형, 75~90%는 E3형을 가지고 있으며, 10~20% 정도가 E4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 환자 중에 E4형을 가진 사람의 상대수(10~20% 이상)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있으며, 치매환자 중에 50~60%는 E2, E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포리포단백질 E4형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위험 인자로 생각하고 있다.
- ④ 두뇌손상은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 ⑤ 교육은 뇌 활동을 증가시켜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크다.
- ⑥ 술, 담배는 치매 발생을 증가시킨다.
- ⑦ 생활습관병(당뇨병; 제3형 당뇨병이 치매, 고지혈증, 고혈압)은 치매 발생을 증가시키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치매**

七多 - 7가지를 많이 하라.

1. 적절히 많이 읽어라. (머리를 쓰라, Mental Activity)
 - 뇌의 적절한 자극은 뇌의 회로를 치밀하고 넓게 만들어 뇌 활동을 증가시켜 치매 예방 효과가 크다.
 - 책을 읽고 쓰고 말하라. 각종 게임을 즐기라. 새로운 것을 배우라. (새로운 취미 생활)
2.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하라.
 -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수면은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을 증가시켜서 뇌 활동이 증가된다.
 - 긍정적, 낙관적 사고는 감정중추를 활성화시켜주며 기억 중추인 해마를 자극시켜 기억을 잘 하게 해주고, 이성의 뇌를 활성화시켜 지적 활력이 증가한다.
3. 즐겁게 웃으면서 일하자. (긍정, 적극, 낙관적 사고)
 - 우울하면 치매 발생이 증가한다.
4. 손을 정밀하게 많이 사용하고 많이 움직이라. (손, 발, 몸을 열심히 움직일 것, Physical Activity)
 - 운동과 감각 중추의 30%는 손을 움직이고 감각하는데 사용되므로 손이 부지런하면 더 넓은 부위의 뇌가 자극받아 활성화된다. 따라서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운동하라.
 - 운동이 가장 좋은 항우울제이다.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3~4회 쉽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라.
 - 걸을 수 있을 때 뛰는 것보다 빠르게 걸으라.
5.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라. (Social Activity)
 - 사회봉사 활동은 신경세포회로를 활성화시켜 뇌기능을 증가시킨다.
6. 많이 씹으라. (5감 훈련)
 - 저작운동을 많이 하면 기억중추인 해마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해마가 두터워진다.
7. 좌뇌, 우뇌를 사용하라.

三不 - 3가지를 피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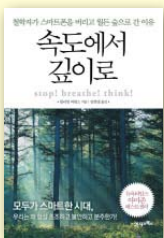
1. 스트레스를 피하라. (뇌 혹사 말고 격리를 피할 것)
 - 건망증은 스트레스의 중요한 지표로서 스트레스는 신경세포의 사멸을 촉진시켜 치매 발생을 증가시킨다.
2. 뇌 손상을 피하라.
 - 뇌 손상은 치매 발생을 증가시키므로 뇌손상이 가능한 격투기 등은 좋지 않다.
3. 알코올, 담배, 불필요한 약물, 알루미늄 피하고 생활습관병(성인병; 고혈압, 당뇨, 비만을 조심하라.
 - 운동, 식이요법(식사량 유지하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할 것)
 - 고도비만과 복부비만은 치매발생을 증가시킨다. 또한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너무 적은 체중도 치매 발생이 증가하므로 평균 수준의 적절한 체중유지가 중요하다.
 - 탄수화물(뇌 에너지 공급), 단백질(신경전달물질 합성), 지방(신경세포막 구성)의 고른 영양섭취가 뇌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

교보생명, 시니어파트너즈 / 시니어파트너즈 / 333쪽
8가지 키워드로 분석한 대한민국 시니어 트렌드 심층 보고서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는 국내 대표 생명보험사인 교보생명과 시니어비즈니스 전문기업인 시니어파트너즈가 대한민국의 고령화에 따라 발전하는 시니어 산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기획하고 제작한 국내 최초의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분석 리포트로 두 회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시니어 소비자 분석보고서 결과와 함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 실제 시니어와의 인터뷰,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했다. '시니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속도에서 깊이로

윌리엄 파웍스 / 임현경 역 / 21세기 북스 / 340쪽
모두가 스마트한 시대, 우리는 왜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분주한가!
철학자가 스마트폰을 버리고 울든 숲으로 간 이유는? 인간에게는 균중이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을 찾으려는 욕구가 상충한다. 그러나 현대인의 삶은 급속한 디지털의 발전으로 균형을 잃은 채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욕구의 충돌과 새로운 시대의 혼돈은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서 고민되어 온 문제이다. 이 책은 플라톤의 대화법, '책'이라는 내적 공간에 접속하는 도구를 만든 구텐베르크, 햄릿에게 자신의 생각을 적는 테이블을 들려준 셰익스피어 등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통해 만난 일곱 철학자들로부터 분주한 디지털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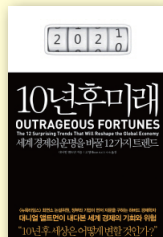
속도에서 깊이로



강남부자들

고준석 / 흐름출판 / 308쪽
평범했던 그들이 강남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 부동산 부자, 그들의 진짜 투자법과 성공 스토리를 다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한 부동산 재테크 최고의 명강사이자 대한민국 명사들의 부동산 컨설팅을 맡고 있는 저자가 부동산 부자 50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투자패턴 비밀을 소개한다. 부동산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꼭 알아야 할 사항 사례를 통해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여주면서 부동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토지와 주택을 돌아보며 현장 답사의 중요성과 현장에서 살펴봐야 하는 요소 등을 짚어주고, 놓치기 쉬운 부동산 법규와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10년 후 미래

대니얼 엘트먼 / 고영태 역 / 청림출판 / 307쪽
10년 후, 중국은 지고 유럽연합은 붕괴한다!

〈뉴욕타임스〉에서 최연소 논설위원을 지내고 영국 정부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대니얼 엘트먼 교수가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어떤 국가가 경제적 위험에 직면할 것인지, 성공적인 투자 분야는 무엇이고, 다음의 경제위기는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준다. 세계 경제의 변화 이면을 깊숙이 파고들어 중국의 몰락, 미국의 부활, 국제 교역 체제의 변화, 라이프스타일 허브의 등장, 미들엔의 부상 등 현재 정책들이 초래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결과들을 과감하게 밝혀냈다.



손정의 세계를 로그인하다

수리 / 현문미디어 / 256쪽 세계적인 재일 한국인 기업이 손정의

일본의 거인 4인에게 듣는 '손정의'의 진짜 매력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책은 손정의가 재일 한국인으로서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보며, 그가 왜 일본 현대의 영웅이 되었는지 알아본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 있다. 1부에서는 소프트뱅크 창업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손정의의 명연설을 들여다보고, 손정의가 왜 로마의 현신이라 불리는지 백년이란 세월을 넘어 손정의와 로마 두 인물을 비교한다. 2부에서는 일본 각 분야의 거인 네 명이 말하는 손정의에 대해 답아냈다. 3부에서는 손정의가 인류의 미래 행복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본다.



미술전 2011 크라운-해태제과와 함께 하는 - 미술과 놀이 `움직이는 미술전`

이번 미술과 놀이 `움직이는 미술전`에서는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정적인 전시가 아니라, 움직이는 작품인 키네틱 아트 중심으로 역동적인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전시내용은 동력, 전자장치를 이용하거나 센서, 각종 디지털적인 요소 등이 결합된 전시로 평면, 조각, 설치 등 종합적인 전시로 펼쳐진다. 특히 움직임과 미술의 관계를 조명, 현대미술의 시각적, 촉각적 즐거움을 준다. 더욱이 이번 전시는 보다 참신한 젊은 작가를 기용, 아이디어가 번득이는 작품으로 관객에게 다가설 것이다.

- 일정 : 7월 8일(금) ~ 8월 24일(수)까지
- 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문의 : 02-580-1300



발레 `조지발란신의 호두까기인형` - 오리곤 발레단의 한여름 밤의 크리스마스

오리곤 발레단은 아메리칸 댄스 시어터, 뉴욕 시티 발레단, 보스턴 발레단, 샌프란시스코 발레단과 함께 미국 내 손꼽히는 발레단 중 하나로, 미국 발레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한 발레단으로 명성이 높다. 특히 오리건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가장 대중적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레단과 비교하여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다.

- 일정 : 7월 31일(일) ~ 8월 7일(일)까지
- 장소 :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 070-7814-7330



무용 `한국 명작무 대제전`

숨겨졌던 한국 명작무, 대제전에 나타난다.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한국무용의 대기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연구원(원장: 인남순)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한국전통무용의 대기들이 이흥구, 양성옥, 국수호, 박재희, 정재만, 채상묵, 김말애, 이병옥이 46개의 작품을 선정했으며, 각 춤의 전수자, 이수자들이 참여하여 전통무용의 진수를 보여준다. 한국 전통춤의 올바른 보존 및 계승이라는 취지 아래 열리는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 한국무용의 새 장을 연 최승희, 조택원, 김백봉 등의 주옥같은 레퍼토리까지 춤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 될 것이다.

- 일정 : 7월 14일(목) ~ 7월 16일(토)까지
- 장소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문의 : 02-589-1002



뮤지컬 `삼총사`

초연의 성공과 앵콜 공연으로 명품 뮤지컬로 자리 잡은 `삼총사`. Best of Best, 최고의 드림팀이 선사하는 9일간의 향연으로 짧은 기간인 만큼 특별하고 화려하게 준비된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작 <삼총사>를 원작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와 브라이언 아담스와 스티브 로드 스튜어트가 함께 부른 `All for Love`가 뮤지컬 넘버로 되살아났다. 초호화 캐스팅과 더 웅장하고 세련되어진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업그레이드된 뮤지컬을 만날 수 있다.

- 일정 : 7월 22일(금) ~ 7월 31일(일)까지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
- 문의 : 02-764-7858~9



뮤지컬 `피맛골 연가`

뮤지컬 `피맛골 연가`는 스펙터클한 무대와 화려한 의상, 풍부한 사운드를 바탕으로 현대, 조선시대, 경성 등 시대를 넘나드는 환상적인 공간을 펼쳐 보인다. 서민들의 추억과 애환이 담긴 삶의 터전 피맛골에서 서출 출신의 김생과 사대부 여인 홍랑의 애틋하고 감동적인 사랑이야기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조화롭게 갖춘 장소영 감독의 장엄하면서도 위트 있는 음악과 시적인 언어로 찬사를 받아왔다. 600년 가까이 서민들의 거리였던 피맛골, 2011년 그 좁은 골목이 다시 한 번 많은 이들의 사연과 추억을 지닌 가슴을 울리는 뮤지컬로 되살아난다.

- 일정 : 8월 26일(금) ~ 9월 11일(일)까지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
- 문의 : 02-501-7888



위기에 맞선 담대한 도전

서울 강서구청 제51회 ‘비타민강좌’ 6월 9일(목)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구청장 노현승)과 본원이 2007년 3월 개설한 ‘비타민강좌’는 급변하는 시대에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 소양함양을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적자원 육성을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매월 진행되고 있는 ‘비타민강좌’는 앞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연을 통해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기혁신 및 자기개발로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6월 9일, “위기에 맞선 담대한 도전”을 주제로 제51회 강연을 해주신 양준혁 SBS 야구해설위원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프로야구에서 안타 2318개, 홈런 351개, 득점 1299개, 타점 1389개, 사사구1380개 등 9개 부문 최다기록. 이것이 내 프로야구 선수생활 18년간의 기록이다. 선수생활을 하는 동안 잠자는 시간만 빼고 항상 야구만 생각했다. 야구와 모든 것을 연관시켜 생각하는 삶이었다.

2002년 성적이 부진했을 때 새로 ‘만세타법’을 익혀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그 이전부터 ‘뉘시타법’이라는 것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뉘시를 좋아하는데, 뉘시줄을 던지는 모습을 타법에 적용했다. 물 위에 떠있는 찌를 야구공이라고 생각했다. 2~3시간 고기가 안 잡힐 때도 있는데, 그러면 찌가 두 세 개로 보인다. 그럴수록 더 집중해야 한다. 공에 대한 집중력을 뉘시하면서 키운 것이다. 그래서 침체가 왔다 싶으면 뉘시를 하러 갔다. 야구하는 동안 뉘시가 많은 도움이 됐다.

32년간의 선수생활과 화려한 은퇴

초등학교부터 프로생활까지 32년간 야구선수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은퇴했다. 그라운드에서 유니폼 입은 모습만 보셨을 텐데, 나도 요즘 양복 입는 게 어색하다.

누구나 위기와 시련이 있기 마련이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럴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했다. '야구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냈다. 지난해 9월 19일 정식으로 선수생활을 내려놓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외롭고 떨렸다. 야구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다른 삶을 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섰다.

대구구장에서 은퇴 경기를 했다. 그런데 삼진을 시원하게 3개나 먹었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나중에는 상대투수에게 "너는 프로다"라고 말해줬다. 당시 투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갓 데뷔했을 때 내가 첫 홈런을 친 선수였는데, 그 복수를 제대로 했던 것 같다.

내게 삼진을 안겼던 투수가 7회에 마운드에서 내려갔다. 은퇴경기에서 1루도 못 밟아 보면 많이 아쉬웠을 텐데, 다음 투수를 상대로 2루 땅볼을 친 뒤 1루까지 전력 질주했다. 그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그때 1루로 달렸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인생의 축소판 야구

은퇴하고 지난해 10월, '양준혁 전국 청소년 야구대축제를 열었다. 학생야구 60개 팀이 참가한 야구축제였다. 학생들이 너무 공부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야구축제였다. 야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을 하고, 사회의 리더로 키우는 것이 목표이다. 참가한 학생들도 참 좋아했다.

야구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번트는 양보이며, 홈런은 대박이다. 선후배 간의 예절도 있고, 친구간의 우정도 있다. 게임에서 지면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 나는 야구축제를 통해서 학교 안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인성교육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려고 한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공부해야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었다. 야구를 하다보면 아이들의 생각이 건전해지고 몸도 튼튼해지고, 오히려 학업성적도 더 올랐다. 반대하던 부모들이 이제는 고맙다며 편지를 보내오는데,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청소년 야구대축제는 계속 열 것이다.

'양준혁 야구재단'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주려고 한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야구재단은 오는 5월 말 발족할 예정이다. 나는 프로야구에서 9개 부문 최다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MVP와 홈런왕은 한 번도 못해봤다. 하지만 여러 시즌 꾸준한 성적을 올리면서 나



이 먹어도 꾸준하게 한다는 야구계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현역에 있는 후배들이 내가 갖고 있는 기록을 넘어 더 위대한 기록을 남기길 바란다.

한국야구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예전에는 미국 마이너리그 정도의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 실력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야구장 인프라는 선수와 팬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열악하다.

시련을 극복한 자기 변화의 노력

야구에 '사사구'라는 것이 있다. 사사구는 안타나 타율상의 기록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홈런이나 안타, 타점 기록을 깰 때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사사구 기록을 깰 때는 그렇지 못했다. 사람들이 이 기록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사구 기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야구는 팀 간 펼치는 경기이다. 결국 팀을 위해 희생할 상황이 생긴다. 나 또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상대 투수들이 공을 많이 던지도록 괴롭혀서 걸어 나가는 것으로 찬스를 만드는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찬스를 이어주는 것을 크게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이다.

나는 항상 뒷 타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많이 했다. 조연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묵묵히 하다 보니 마지막에는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되어 있었다. 우리가 어떤 분야든, 그것이 작든, 알아주지 않던 묵묵하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야구 인생에서의 터닝 포인트는 2002년이였다. 삼성에서 뛰다



가 해태 타이거즈, LG트윈스로 트레이드되었다가 다시 삼성으로 돌아온 해이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삼성에 돌아올 수 없었고,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선수들의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협의회 결성을 내가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그 전 해에 타격왕까지 했기 때문에 서로 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어느 구단도 오라는 곳이 없었다. 선수협의회 구성을 주동했기 때문에 8개 구단 사장들이 나를 미워한 것이다. 결국 8개 구단이 단합해서 나를 '아웃'시키려고 했었다.

삼성 구단도 마찬가지였는데, 김응룡 감독 덕분에 복귀할 수 있었다. 당시 김 감독은 내게 '외야수'와 '팀 리더'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당시는 이미 30대 중반으로 선수들 중에는 고참이었다. 나는 항상 맨 앞줄에서 뛰었고, 땅을 고르거나 공을 주을 때도 먼저 나갔다. 그런 모습을 보고 후배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시작했다.

2002년은 개인적으로 시련의 해였다. 9년 연속 3할을 쳤는데, 처음으로 2할대의 타율을 기록했다. 야구인생 처음으로 좌절을 맞은 해였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한 번은 실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핑계를 댔지만 2년 연속 2할대를 기록하면 어찌나 하는 절망감이 닥쳤고, 벼랑에서 있는 느낌이었다.

결국 생각을 바꾸었다. '지금처럼 해서는 프로무대에서 살아남지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바꾼 것이 타격 폼이다. 지금도 기분으로는 타석에 들어가면 홈런을 칠 것 같다. 생각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람 일이다. 그게 제일 어렵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2002년 하와이 전지훈련 기간 동안 타격

폼을 바꾸기로 했다. 물론 23년간 몸에 밴 것이 있으니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었다. 그러나 수백 번을 되풀이하면서 수정해나갔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실패 자료를 모아 분석했다. 나 자신이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묻고 답하기를 반복했다.

그런데 우연히 신인시절의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다. 팔을 들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만들어 낸 것이 '만세타법'이다. 결국 그 다음 해 홈런과 타점 최고 기록을 올렸다.

프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승엽 선수는 7년 후배지만 내 생각과 철학을 바꾸게 해준 선수이다. 보통 후배들의 타격 지도를 해보면 많은 후배들이 10분 뒤면 딴 짓을 하고 있는데, 이승엽 선수는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다음 날 세 가지를 습득해 오는 선수였다.

삼성으로 돌아와서 보니 이승엽 선수의 타격 폼이 바뀌어 있었다. 그 전 해에 홈런 최고 기록을 경신한 타격 폼인데, 바꾼 이유가 궁금했다. 이승엽 선수는 홈런 30개를 치면 다음 해에는 40개를 치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는 50개를 치고 싶어 하는 선수이다. 물론 최고의 자리는 달콡하다.

젊은 선수들은 그 자리에 오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리고 그 자리가 정상인 줄 알고 있다가 결국 단명하고 만다. 그들은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승엽 선수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늘 새로운 목표를 추구했다.

나 역시 안타를 치든 일단 타격을 하고 나면 1루까지 최선을 다해 달렸다. 무엇인가 얻으려면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그 고통을 이겨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라운드에서 단 한 번도 대충 뛰 적이 없다. 공을 치고 나면 1루 베이스까지 무조건 뛰었다. 열심히 뛰다 보면 '내가 안타'가 나올 수도 있다. 결코 행운은 없다.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다. 어떤 선수들은 안타가 아니라고 미리 판단하고 1루 베이스 반 정도가 다가 돌아와 버린다.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난다. 프로는 어떤 순간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양준혁 해설위원

1969년 생으로 영남대를 졸업하고 1993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했다. 2010년 9월 은퇴하기까지 프로 18년 동안 신인상, 타격왕 4회, 타점왕 1회, 최다안타 2회, 최다출루율 3회, 9년 연속 3할 타율, 16년 연속 3자리 안타, 올스타전 최다 출장(15회), 역대 최다 골든글러브 수상(8회), 최다 홈런(351개), 최다 타점(1389개), 최다 득점(1299개), 최다 4사구(1380개) 등의 기록을 남겼다. 은퇴 후 양준혁 야구재단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야구해설 등의 방송과 활발한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역사(東亞細亞歷史) 왜곡(歪曲)의 시정(是正) 3



운강(雲岡)석굴 중 16-20굴은 탁발 북위 최초 5대 황제들을 부처로 형상화했다. 18굴의 태무제(太武帝 r.423-52).

불교를 숭상하는
선비(鮮卑) 정복왕조
북위-북주-수(魏周隋)의 직계
후예임을 천명 했던 당(唐) 왕조

舊唐書 卷九 本紀 第九 玄宗下
十二載
以魏周隋 依舊爲三恪
復封韓 魏 蜀 魯 公

宋史 卷四百八十五 列傳 第二百
四十四 夏國上
昔唐承隋後 隋承周齊
上溯元魏



● 홍원탁 교수

칼럼 내용의 근거가 되는 관련 기초 사료와 2차 자료를 검토하고 싶은 독자께서는 <http://www.HongWontack.com>을 참조하십시오.

수-당 창건자들은 북위/서위/북주 정복왕조가 개발하고, 자신들이 그 실효성을 직접 체험한 균전제, 부병제, 탈-유교 불교적 통치이념 등을 그대로 답습하여 제국을 운영했다. 중앙집권화가 됐으면서도 부족적 성격을 가진 부병제와 이한치한(以漢治漢) 원칙에 입각해서 선비 세습귀족의 지휘를 받는 한족 관료들 통해 한족을 다스린다는 2원통치제(二元統治制)를 답습하여 통일중국 현실에 맞도록 보편성을 고양하는 율령제 형태로 기존 제도를 개량해 통치를 한 것이다.

550년, 서위의 우문태는 북위가 485년에 정부 소유 황무지를 바탕으로 도입한 균전제(均田制)를 기초로 부병(府兵) 제도를 만들었다. 부병은 배정 받은 농지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고, 농한기에는 군사 훈련을 받으며, 전시에는 무기, 군복, 식량을 스스로 마련해 출정했었다. 부병제는 선비(鮮卑) 24군의 병력을 관중(關中)의 티벳족, 돌궐족, 변방 한족들로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당 역시 부병 제도를 통해 평생의 전문직 전투병인 강력 한 군사력을 대규모로 동원할 수 있었다. 636년 당시 353개의 부병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261개가 다양한 한족이 혼재하는 관중에 위치했고, 나머지 92개는 대부분 인근 산성지역에 위치했었다. 동부 평원이나 남부의 민을 수 없는 한족 밀집지역에는 아예 부병본부가 설치되지 않았었다. 부병제도는 토지소유의 편중이 심화되어 균전제가 폐기되고 율령제가 와해되는 749년까지 유지됐다.

북위 지배계급의 전통 신앙인 샤머니즘은 한족 중 무지한 하층민의 미신과 마찬가지로 보였기 때문에 통치자의 종교로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유교를 수용한다는 것은 피지배 한족의 문화적 가치관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탁발선비 지배자들은 통치 전략상 외래 종교인 불교를 적극 장려하면서 자신들의 황제를 부처의 화신으로 미화했다.

477-534년 기간 중 북위 내의 사찰 수는 6,478개에서 3만 개로, 승려 수는 67,258명에서 2백만 명으로 급증했다. 한족의 문화전통을 고수한다는 남조 내에서는 승려 수가 24,000명에서 불과 82,700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 문제 양견은 541년에 절간에서 태어나 12살까지 비구니가 키웠다. 양견은 자신을 부처의 현신으로 부각시켰고, 불교를 통일중국 통

치이념으로 확립했다. 당 고조 이연 역시 불교 전통의 선비 지배씨족 출신이었고, 당 태종은 불교를 강력하게 지원했다. 691년, 측천무후는 아예 불교를 국교로 만들었다.

보편적이며 범세계적인 자비(慈悲)와 호국의 불교이념을 적극 수용한 수-당 지배자들은 유교 전통의 덕(德)을 내세우면서 주변 민족을 아만시하며 폐쇄적인 한족 조정과는 달리 개방적인 국제주의를 추구하여 문화, 예술, 사상적인 면에서 세계화된 제국을 이룩했다.

고대 주(周) 왕조는 5제(五帝) 신화의 마지막 황제인 순(舜)의 자손, 해(夏) 왕실의 자손, 은(殷) 왕실의 자손 가운데 각각 한 사람씩을 선발하여 정통 후계 왕조가 선대 왕조와 그 후손을 존중한다는 의미인 각(恪)으로 봉해 3공(公)을 삼았다. 당 왕조의 3각은 북위의 황족 자손(韓公), 북주의 황족 자손(介公), 그리고 수의 황족 자손(儁公)을 말했다. 북주서를 보면 558년에 북위 황족 후예를 한공으로 삼았다.

양견은 제위를 찬탈한 직후 북주 정제를 개공으로 삼았다. 자치통감 748년 기록을 보면 북위 황족 자손 가운데 한 명을 뽑아 3각의 하나로 삼았다. 당의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왕조가 북위-북주-수(魏周隋)의 직계 후예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제도적으로 천명했던 것이다. 송사(宋史) 역시 수-당이 북주-북제-북위의 후예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그런데 자치통감 750년 기록을 보면 한(漢)족인 재야의(處士) 최창(崔昌)이라는 사람이 현종(r.712-56)에게 상소하기를 '북위-북주-수가 모두 정통이 아니기(皆閏位) 때문에 당 왕조는 은-주-한(殷周漢)을 승계하여 토착 보호신의 옥덕(土德)을 이어받아야 마땅하다'며 화덕(火德)인 위-주-수 자손의 3각을 토덕인 은-주-한 자손의 3각으로 교체할 것을 상소했다.

역시 한족인 집현전 학사 위포가 '하늘의 뜻'이라 맞장구를 치자, 늙고 망령기를 보이기 시작하는 현종은 은-주-한의 자손들을 선발해서 3각으로 삼고, 최창을 좌찬선대부, 위포는 우부원외랑으로 삼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753년 5월, '제정신이 든' 현종은 다시 위-주-수의 후예를 선발해 3각으로 삼았다. 잠시나마 황제를 현혹한 죄로 최창은 오리위로, 사기를 방조한(助邪) 위포는 아랑위로 강등되었다. **▶▶▶**

up



기계와 인간을 구분 짓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새로운 **지혜 콘텐츠!**
인간개발연구원 <온라인 평생회원>



* 170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기념하여 가치있는 콘텐츠로 미래의 리더들과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CEO 해외석학 등 한국을 대표하는 1% 명사들과 함께하는 강연동영상과 녹취 자료 제공, 격월간지 <좋은사람 좋은세상> 정기발송, 매주 강연요약 이메일발송, 연구원 주최 후원 오픈세미나를 100만인의 회비로 평생 제공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의 열정과 지혜를 공유하겠습니다.

공공의료의 독심!

국립중앙의료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선진 의료기술을 섭렵한 전문의 대거 영입
- 최신 의료장비 도입
- 공공의학연구소, 뇌·심혈관센터 설립
- 환자 맞춤형 서비스 위한 직원교육 강화
-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

비싼 진료비 앞에서 발길을 돌렸던
우리 이웃들에게
질 높고 품격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http://www.nmc.or.kr> * TEL. 1588-1775

100-79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같이」의 가치는 더 깊어집니다
함께한 추억이 많아질수록 「같이」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누군가와 「같이」 꿈꾸는 세상은 더 따뜻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농협 50년, 당신과 함께 만들어 온 「같이」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두글자
[같이]의 힘을 믿습니다